

12
한국+한국
한국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7



서울문화재단

Conte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7. vol 5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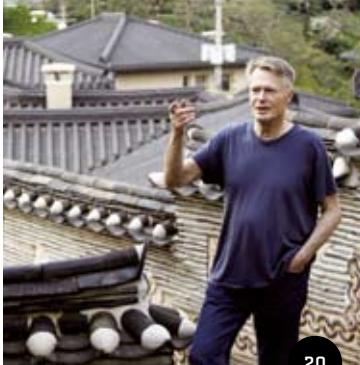
시민 예술가 시대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시민 예술가들은 소소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스스로를 구원한다. 시민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예술을 만나자.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이 시대에.

02 MUST 10 7월의 문화 소식

7월의 문화+서울 | 시민 예술가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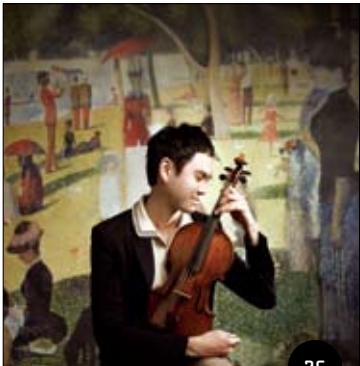
- 06 우리는 지금 '예술가 사회'에 산다
- 08 착한 예술을 주도하는 시민 예술가
- 10 나는 시민 예술가다
- 12 서울거리아티스트 '농구보이' 민경진
- 14 재능나눔 봉사단 '올프렌즈원드양상불'
- 16 가드너 '요술당나귀'
- 18 시민 예술가 거리공연 가이드



20

사람과 사람

- 20 문화人
북촌 한옥마을에서 연희동까지
노벨상 수상작가 르 클레지오의 서울 예찬
- 26 영 아티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세 남자가 초대하는
프랑스 음악 여행
- 32 서울 단상
소설가 백기호, 소멸과 생성이 뒤섞이는 도시에서
- 34 나의 서울 생활기
음악으로 꿈꾸는 '남쪽 끝섬'의 여유
일본인 뮤지션 하찌



26

지금 서울은

- 38 아트 갤러리
「문화+서울」이 주목한 7월의 작품
- 40 이슈 1 남산예술센터 상주예술가들을 만나다
- 44 이슈 2 스마트폰으로 문화정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 48 연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 52 이미지 서울 상상
- 54 리뷰 1 연희문학창작촌 도시문화콘서트
- 56 리뷰 2 문래예술공장 국제 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Mullae Resonance
- 58 리뷰 3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展
- 60 이달의 평론
말콤밀방한 신문, 딱딱하게 읽기
〈신문: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展



40

서울 너머로

- 64 해외 트렌드
한국-호주 국제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
- 67 해외 뉴스 싱가포르, 베를린, 파리



70

문화@서울

- 70 좌충우돌 문화 체험
쓸모없는 물건들의 어여쁜 변신
문화예술공장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 74 문화 캘린더
- 76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표지 이야기

- 이민혜 〈Relaxation〉
color pencil, 300×220mm, 2008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패러
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트
있게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38페이지 참조)



서울 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8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흥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교열 최귀열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야기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Must 10



02



01

신달자, 박정대 시인과 함께하는

〈모든 가능성의 종이〉 | 7월 28일 |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 02-324-4690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의 연간 기획 프로그램 '연희목요낭독극장'의 7월 무대. 여성시를 대표하는 시인 신달자와 우리 시의 낭만주의적 정신을 순도 높게 구현한 박정대 시인이 함께한다. 낭독되는 작품은 신달자 시인의 〈종이를 주제로 한 전작 시집 〈종이〉와 박정대 시인의 〈모든 가능성의 거리〉. 낭독회와 함께 펼쳐지는 공연은 '3호선 버터플라이'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자 라디오 DJ 및 영화음악 감독으로 대중문화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기완 시인이 연출을 맡았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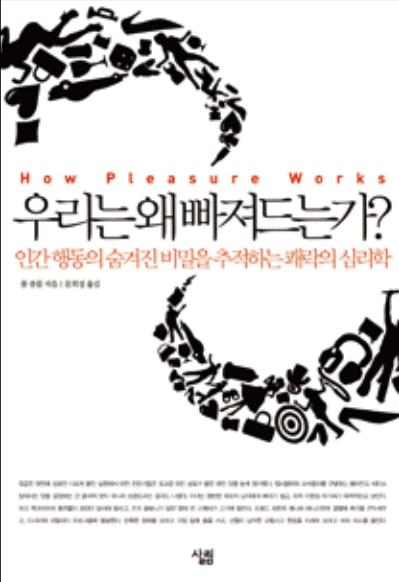
상주예술가의 신작을 만나는 자리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

7월 6일~7월 15일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02-758-2150

남산예술센터의 상주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 작가와 동이향 작가의 낭독공연이 펼쳐진다. 약 10개월간 남산예술센터의 공간적 특성과 내용적 콘셉트를 고려한 희곡 창작 작업에 몰두한 두 작가의 결과물이 이번 낭독공연을 통해 발표되는 것. 김지훈 작가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풍찬노숙〉을, 동이향 작가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잊혀진 부대〉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에 낭독된 작품들은 모니터링 요원의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 2012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오른다.

03



04

05



03

인간 행동의 비밀을 추적하는 쾌락의 심리학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 | 폴 블룸 지음 |

문화경 옮김 | 살림 펴냄

우리는 왜 음악에 빠지고 물건에 집착하고 이아 기에 감동하는가?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음식, 예술, 섹스, 물건, 영화, 이야기 등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떻게 심리를 움직이는지를 흥미로운 실험과 고찰을 통해 보여준다. 철학, 신경과학, 아동발달, 행동경제학을 바탕으로,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인간 심리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만날 수 있다.

04

춤추며 즐기는 어린이 영어연극

〈Twelve Singing Animals〉 | 8월 21일까지 |

라트어린이극장 | 02-5600-999

배우와 함께 춤추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영어연극. 세상을 독차지하려는 무섭고 난폭한 욕심쟁이 용과 세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로, 관객들은 노래하는 열두 동물과 함께 성난 용을 달래기 위해 공연 내내 춤추고 노래하게 된다. 네 차례의 공연을 통해 9만 7천 명 정도가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

05

화폭에서 무대로

〈화선, 김홍도〉 | 7월 8일~7월 16일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5~6

국립극장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 공연 〈화선, 김홍도〉가 7월 8일부터 펼쳐진다. 〈화선, 김홍도〉는 한 국적인 노래, 춤,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가무악극으로,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뮤지컬 배우가 함께 만드는 작품. 김홍도의 대표작 〈무동〉 〈씨름〉 〈나룻배〉 등을 주요 모티브로 해 18세기 김홍도의 그림 속 이미지 세계가 현대적 무대 위에서 영상 메커니즘과 접목해 새롭게 표현된다.

Must 10



06



07



08

07

어린 왕자의 편지글

06

김애란의 첫 번째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 김애란 지음 | 창비 펴냄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등 두 권의 소설집만으로 한국 문단의 차세대 대표작가로 떠오른 김애란의 첫 번째 장편소설이 드디어 출간됐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눈부신 이야기가 담백하고 신선한 문장과 함께 펼쳐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나이 들에 대한 반짝이는 통찰이 미소와 눈물을 함께 선사하는 책.

〈생텍쥐페리,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 김보경 옮김 |

시공사 펴냄

기술학교에 다녔던 10대 시절부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생텍쥐페리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100여 통의 편지를 엮은 책. 생텍쥐페리의 어머니 마리 드 생텍쥐페리 여사가 직접 편지를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이자 고독한 비행사로 기억되는 생텍쥐페리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더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웠던 위대한 인간의 인생을 만날 수 있다.

08

삼촌팬을 부탁해

〈키사라기 미키짱〉 | 8월 7일까지 |

컬처스페이스 엔유 | 02-501-7888

2000년 일본에서 초연되어 영화로까지 제작된 〈키사라기 미키짱〉이, 〈웃음의 대학〉으로 유명한 이해제의 연출로 한 국 무대에 오른다.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은 섹시 아이돌 키사라기 미키에 열광하는 삼촌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를 대중적인 소재로 경쾌하게 풀어냈다. 삼촌팬들의 엉뚱하지만 진실한 열정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는 미스터리 코미디 연극.

09



© Photo RMN / Musee d'Orsay – GNC media, 2011



10

09

고흐의 별밤을 만나다

2011 오르세미술관전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 | 9월

25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기랑미술관 | 02-325-1077~8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오르세미술관전으로, 지금까지의 전시 중 가장 풍성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고전주의에서부터 인상주의를 거쳐 상징주의까지, 회화, 대생, 사진 등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 134점과 함께 유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화가의 꿈과 이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별이 빛나는 밤>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어 화제를 모은다.

10

대한민국, 오페라에 빠지다

2011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 7월 24일까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 02-580-1300

대한민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오페라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베세토오페라단은 7월 2일부터 6일까지 치밀한 연극적 구성이 돋보이는 <토스카>를, 호남오페라단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청자 오페라 <눈개>를 선보인다. 이어 구미오페라단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메밀꽃 필 무렵>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며,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각색한 국립오페라단의 어린이 오페라 <지크프리트의 검>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토월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예술가 사회'에
산다





일상으로 돌아간 예술에 대하여

© 나영완(2010 서울거리아티스트 온라인 사진공모전 대상)

착한 예술을 주도하는
시민 예술가



“저 연극은 뭘 말하려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 “예술이 그렇지 뭐.” ‘예술’은 이처럼 현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도 현실과는 먼 것이었다. 소재나 표현 면에서 특정 향유층의 전유물이 되면서 사회의 외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은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하기 위해 다시 등장했다. 새로운 문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착한 예술’이 바로 그것이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 갈수록 많아지는 소외계층을 예술이 보듬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계층 간 거리를 메워주는 매개 역할을 시민 예술가들이 맡음으로써 착한 예술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힘, 착한 예술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과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 지구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술은 이때 치유의 역할과 함께 문화 교육까지 아우르며 위기에 빠진 사회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착한 예술이다.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운동이다. 경

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설립한 엘 시스테마는 빈민층 아이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만드는 대변혁을 일으켰다. 그 엄청난 효과와 반응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넘어 세계 각국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엘 시스테마를 표방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진행 중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진행하는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이들의 경험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눈다.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구로구에 이어 도봉구에서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한다.

사회적 기능을 위한 예술 활동은 엘 시스테마 이전에도 존재했다. 음악, 무용 등 클래식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찾아가는 예술’ 콘셉트의 활동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업도



뛰어난 예술가들은 예술에 세상을 담아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시민 예술가들은 소소한 활동으로 서로를 위안하고 보듬으면서 자신까지 구원한다.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 환원의 정신을 실천한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은 대개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치유나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다. 프로보노는 원래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봉사하는 것을 뜻했지만, 이제는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산되며 나눔의 의미를 되찾고 있다.

시민 예술가도 이런 흐름에서 나타났다. ‘보는 예술’에 만족하지 않고 ‘하는 예술’의 매력에 빠진 시민들은, 단순한 취미나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에 재능을 기부하는 데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다.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남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랑방 문화클럽’이다. 현재 4천여 명의 시민 예술가가 활동 중인 사랑방 문화클럽은 5년 째를 맞아 문화공연 체계를 강화하는 등 팀별 문화예술봉사를 한층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합팀 활동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35개 음악

연합팀 ‘사랑방 오케스트라’가 출범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27개 미술, 공예, 사진 분야 전시연합팀인 ‘사랑방 전시유니트’도 공식 창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술교육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서울의 문화예술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넘겨주는 사업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서울 도심의 광장이나 숲,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열린 예술극장’으로 지정해 시민 예술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같은 공간의 마련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더 많은 시민 예술기를 육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소외계층 스스로가 시민 예술가가 되어 보여주는 활동들이다. 국내 유일의 장애인 대상 창작공간인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두두두(Do, Do, Do!)’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도 또 하나의 희망을 준 계기가 됐다. 고령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외면받는 노인들은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에서 공연단으로 활동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의 다문화 여성 감독 프로젝트 역시 사회적으로 격리된 다문화인들이 스스로 소통과 화합을 주도하도록 변화시키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술이 있지만, 예술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예술은 시민들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고, 때론 무관심한 대상이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예술을 하는 시대

그토록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던 예술은 ‘누구나 예술을 하는 시대’를 맞아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회의 표면을 걸돌던 예술은 이제 우리 주변의 무언가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든 ‘착한 예술’은 이미 ‘예술치료’의 영역을 넘어 ‘사회 통합’의 영역으로 향해가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기존 예술가들이 아닌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술은 천부적인 재능과 예민한 감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문화권력’이었다. 이런 예술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 시민 예술의 힘이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예술에 세상을 담아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시민 예술가들은 소소한 활동으로 서로를 위안하고 보듬으면서 자신까지 구원한다. 이렇듯 문화적 평등과 사회적 공존을 전제로 한 시민 예술가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나는 시민 예술가다

+ 서울 거리아티스트
+ 재능나눔 봉사단
+ 가드너

문화예술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그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한 1차적인 척도로 여길 만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단순한 콘서트나 영화관람의 1차원적인 일방향 정보 전달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공간 중심의 전달방식에서 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문화의 범위가 국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선이 일시적, 단기적인 프로그램에서 상시적,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문화콘텐츠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문화수요자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수요자가 곧 문화공급자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문화예술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문화적 공감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이 곧 예술가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도시의 주요한 문화콘텐츠 공급자로 나서게 되는 사례로는 서울거리아티스트(SeoulStreetArtist), 재능나

눔 봉사단, 가드너(Gardner)를 들 수 있다.

서울의 문화 아이콘, '서울거리아티스트'

서울거리아티스트란 청계천 및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자발적인 거리공연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예술의 창작 기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 아티스트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아티스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연중 정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아티스트만이 서울의 대표적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인증서(license)를 수여받는다. 또한 매년 서울의 대표 축제 및 주요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울의 대표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여 청계천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고민하던 차에 외국



시민이 곧 예술가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도시의 주요한 문화콘텐츠 공급자로
나서게 되는 사례로는 [서울거리아티스트](#),
재능나눔 봉사단, 가드너를 들 수 있다.

의 유수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리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에서 탄생했다.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그 등록 수만으로도 152개 팀에 이를 만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활동할 만큼 질적인 성장도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극, 무용, 음악, 국악, 시각예술, 문화 일반에 이를 만큼 거리공연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시행하는 정기 오디션은 신진 아티스트가 서울의 대표적 아티스트로 발굴, 육성되는 등 용문으로 자리 잡을 만큼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서울거리아티스트로 선발되면 서울의 대표적 아티스트에 대한 활동인증 자격을 받으며, 청계천을 비롯하여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빛미디어파크 등 서울의 주요 광장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또한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서울의 대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서울의 대표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발적인 공연에 한해 공연 모금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무대에서 진행하는 조건부 활동출연료 지급에 대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대한 장려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 상시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서울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통해 이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각 지방도시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서울거리아티스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문화를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다.

‘재능나눔 봉사단’

재능나눔 봉사단은 시민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 없이 일상생활에서 문화향유를 통해 시민이 곧 예술가가 되며, 예술가가 곧 문화향유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문화나눔 행복서울’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시행되고 있는 재능나눔 봉사단 프로그램은 예술창작 · 매개 · 문화향유가 선순환하는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생활 속 열린예술극장은 서울의 주요 공간을 장소 규모 및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대 · 중 · 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중 상시 제공하여 문화예술 단체뿐 아니라 동호회 기반의 문화예술단체들에게 공연을 위한 공간 기반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재능나눔 봉사단은 2011년, 총 15개 팀의 공연단이 연간 1,150여 회에 이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심 속 생태공원에서부터 등산진입로 광장 등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공간까지 공연을 위한 공간은 다양하다. 시민이 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를 나누는 것이 목표. 또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도 제공하여 문화를 통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재능나눔 봉사단은 연중 정기적으로 공개 모집하는데, 단체 및 공연자, 콘텐츠에 대한 예술성, 기타 평가를 통해 엄중하게 선발하고 있다. 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을 서울시민 및 문화복지를 원하는 계층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문화를 통한 나눔의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가든파이브의 자발적 예술가들, ‘가드너’

가드너는 서울시의 주요 핵심공간으로 구분되고 있는 가든파이브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숲 프로젝트〉의 자발적 예술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든파이브 내 주요 공간 3곳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하면서 가든파이브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0년 가든파이브가 조성됨에 따라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기존 서류심사로만 시행하던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중 정기 오디션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질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총 15개 팀으로 구성되며, 가든파이브의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활동 및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매월 우수활동 가드너에게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한여름을 연상시키는 뜨거운 햇볕 탓에 야외에 기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 더운 여름날, 청계천 장통교에 농구공을 든 남자가 등장했다. 하얀색 분필로 바닥에 3점슛 라인을 그리더니, “거기 연예인처럼 생기신 분들, 공연 한 번 보고 가시죠”라며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 시작한다. 바로 4년째 서울거리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농구보이, 민경진 씨다.

서울 거리 아티스트

‘농구보이’ 민경진

친한 친구에게
장기 자랑하듯



서울거리아티스트로 활동한 건 언제부터인가? 2007년 3월부터다. 거리공연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당시 공연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서울거리아티스트 모집 공고를 보고 알려줬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이거다!’ 싶어 바로 지원해 오디션을 봤다.

청계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서울거리아티스트 중에서도 유독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공연을 보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는데, 보이는 공연보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친구, 동생, 혹은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편하게 다가서는 거다. 나이 거 잘하는데 한 번 볼래 하는 느낌. 일부러 실없는 농담도 하고, 가끔은 오버해서 깨불기도 한다. 그냥 친구들에게 보여주

듯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하면, 관객들도 재주 많은 친구의 장기자랑을 구경하듯 즐겁게 호응해준다.

공연 중간 관객과 함께한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다. 공연 중에 관객과의 호흡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 머리 위에 공을 던져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인 남자 입에 젓가락을 물리고 공 세 개를 돌려주는 퍼포먼스다. 나 혼자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관객을 끌어내 공연하면 아무래도 호응이 더 좋다.

거리공연이다 보니 공연 시작 전, 관객을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우선 어린아이들을 먼저 공략하는 거다.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6~7명만 모으면, 그 후에는 일사천리다.

프리스타일 농구가 그리 친숙한 분아는 아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시작한 건가?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던 건 맞다. 하지만 프리스타일 농구는 길거리 농구와는 전혀 다른 분야다. 어디로 훌지 모르는 공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하나하나 기술을 완성해나갈 때의 희열이랄까, 그 맛을 못 잊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기술은 어떻게 연마했나? **프리스타일 농구를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누군가에게 전수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듯한데.** 막 시작했을 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정말 힘들었다. 어렵게 외국 사이트를 찾아냈다고 해도 한두 장면밖에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본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해 노트에 기록한 다음 차례로 나열해 몸으로 익혀나갔다. 독학으로 정말 독하게 배운 것 같다.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연습했으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마임, 저글링 등을 찾아보며 내 공연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농구 프리스타일러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이 길을 걷기로 완전히 결정한 건 막 군에서 제대했을 때였다. 부모님은 전공인 특수체육을 살려 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난 이미 프리스타일 농구에 폭 빠져 있었다. 다행히 내 열정을 이해하신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청계천 외에 주로 공연하는 곳은 어디인가? **TV에도 다수 출연한 걸로 아는데.** 한때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한다. 지역 축제나 스포츠업체 이벤트, 기업 행사 등에서 공연하고 있다. TV에는 〈스타킹〉 〈무한지대 큐!〉 〈TV특종 놀라운 세상〉 등에 출연했다. Mnet 〈러브 스쿨 투어〉라는 프로그램에 한동안 고정으로 나오기도 했고. 난 방송과는 인연이 별로 없는 듯하다. 방송 울렁증이 있어서인지, 거리공연만큼 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2009년에는 월드 투어도 떠났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혼자서만 공연하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졌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3개월간 월드 투어를 떠났다. 홍콩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2개국을 돌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했다. 폴란드에서는 대회에 참가해 2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과 즉석에서 만나 거리공연을 펼친 건가? 떠나기 전에 그 친구들에



게 메일을 보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 합동 공연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재워주고 먹여준 친구까지 있어 정말 고마웠다.

세계의 수준을 경험해보니 본인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지? 실력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른 점은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는 데 비해, 그네들은 즐기면서 한다는 정도랄까. 프리스타일 농구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실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농구 프리스타일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프리스타일 농구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프리스타일러가 나를 포함해 땃 두 팀밖에 없다. 내 손을 거쳐간 학생이 열 명 정도 되긴 하지만, 모두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또 기술 연마에만 1년가량 소비되다 보니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 프리스타일 농구 인구가 많아져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함께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몇 해 전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이 인생의 재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여기 그런 삶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6월의 어느 주말, 성내천 물빛광장은 올프렌즈윈드앙상블(All Friends Wind Ensemble)의 감동적인 선율로 가득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받으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즐겁게 연주하던 올프렌즈윈드앙상블은 2001년 창단 이래 전국우수악대 초청연주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서울시민을 위한 연주회 등 수차례 연주회를 가진 아마추어 관악 연주단이다. 10년 동안 연주단을 지켜온 올프렌즈윈드앙상블의 '강마에' 이종구 단장과 트롬본 주자 이진우 사무국장을 만났다.

재능나눔 봉사단

올프렌즈윈드앙상블

음악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올프렌즈윈드양상불을 직접 소개한다면, 한마디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래도 나 예전에는 악기 했었는데 하는 향수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악기는 못 다루지만 배워가면서 같이 공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양상불이라 소규모 같아도 연주인원이 30~50명 정도 된다. 교사가 많은 편이고 건축사,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다. 그래도 올프렌즈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모두 친구다.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하고, 음악으로 대화하고,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우리를 끔끌다.

음악교육도 하는가? 6개월 코스의 초급반, 그리고 중급반, 고급반이 있다. 함께 공연하는 분들은 고급반이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교육봉사도 하고 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연주회,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이다. 모든 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시민음악회를 많이 하고, 아산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공연도 연다. 꽃 한 송이씩 나눠 주면서.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건데, 거리공연의 느낌은?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디에서 공연하느냐에 따라 관객의 취향과 수준에 맞게 공들여 선곡을 한다. 올프렌즈윈드양상블이 세미클래식, 가요, 팝, 민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대구에서 했던 한여름 밤의 음악회가 떠오른다. 공원에서 연주를 했는데 만 명 정도가 모였다. 엄청난 인파였다. 한여름 밤, 야외에서 자유롭게 맥주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또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섰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국악도 아닌데 무대에 설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다.

생업이 따로 있는데 연습부터 공연까지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겠다. 어떤 즐거움이 있기에 가능한 건가? 양로원에서 연주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운다. 관악 연주를 많이 접한 분들이 아닌데도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싶다. 새삼 음악의 힘을 느낀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손을 꼭 잡으며 좋은 음악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한다. 음악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공연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겠다. 작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우리 공연을 본 소감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음악 칼럼ニ스트였다. 예술의전당에서 다른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야외에서 하는 우리 연주를 들은 거였다. 보고 나오던 공연을 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 아마추어 연주단이 이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무료로 공연한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도울 일이 있으며 돋고 싶다고 하더라.

보람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다.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연습실 월세를 단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료로 연습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원기관에서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주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연주회를 자주 열고 싶어도 공연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절자가 나서 그러지를 못한다. 그게 가장 아쉽다.



스스로를 시민 예술가라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음악적 재능이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시민과 어울려 봉사할 수 있는 자세, 문화시민으로서 시민들과 행복을 공유하는 마인드도 필요할 거다.

재능나눔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거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한다. 단원들 그 누구도 다른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다.

울프렌즈원드양상들이 꿈꾸는 공연은? 뉴욕이나 스페인에서는 주말에도 심 공원에서 많은 연주단이 공연을 한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잔디밭에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는다. 그들에 게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상에 스며드는 공연을 하고 싶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야외공원에서 연주하고 싶다.

글_김현경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스토리 헌터. 북마ガ진 〈SKOOB〉 기자로 일하다 책을 좋아하면 책을 잘 만들기도 하는 줄 알고 기획편집자가 되었다. 사진_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나사나여자?



기타와 젬베 달랑 들고 난지도, 한강시민공원, 홍대 놀이터 등 서울 구석구석부터 부천, 전주, 통영을 돌아다녔다. 이들에게 거리공연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노는 거라고 한다. 산이든 바다든 그곳이 어디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의 음악에 장단을 맞춰줄 사람이 있는 곳이 자신의 무대라고 하는 거리공연의 종결자, 가드너 '요술당나귀'를 만났다.

가드너

요술당나귀

의심 없이
세계평화를
외치며



요술당나귀, 밴드 이름이 특이하다.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스쿨밴드 이름이었는데 다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대로 썼다. 마음 속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우연히 우리의 공연을 보고 잠시나마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랄까.

멤버를 소개해달라. 고정멤버는 리더인 동키(슈렉의 당나귀 친구) 와 나(최진규)이고, 나머지 멤버는 객원이다. 오늘 공연은 정현 (기타, 젬베), 최재원(멜로디언)이 함께한다. 거리공연이라는 게 쉽지 않다.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음악적인 파트너로, 공연 때마다 모여서 한다.

거리공연 다니면서 음악적인 색깔이 바뀐 것 같다. 싱글앨범 나왔던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팀이다. 이름을 한 번 정하니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 지금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나올 EP 앨범이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같이 거리공연 하는 멤버들과 함께 만들었다.

요술당나귀가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건가. 음악적인 장르보다는 가사에 중심을 두고 싶다.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

거리공연이 화려하다. 서울, 전주, 부천, 통영까지. 통영에서는 최다 거리공연이었다고. 처음 거리공연을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시작했는데 3일 동안 15번 정도 한 것 같다. 남들도 다 그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하면 하루에 3번이라고 하더라. 첫 거리공연이라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했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최우수 공연팀에 시상하는 프린지 그랑프리도 받았다. 그때부터 거리공연의 매력을 많이 느꼈다. ‘통영예찬’이라는, 통영에 대한 노래도 만들어서 이번 EP 보너스트랙에 넣었는데 통영방송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꼭 본무대에 서려고 오케스트라 편곡도 다 해뒀다. 하하.

거리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예전에 클럽 안에서 공연할 때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다. 음악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섰는데 요즘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함께 즐기고 공감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관객도 많겠다. 아이들과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템버린도 치게 하고 함께 놀면서 공연을 마무리한다. 연인들이 올 때는 문제를 맞히면 불러내서 잠깐 마이크를 건넨다.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마이크를 건네줬더니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더라. 공연 끝나고는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를 만나 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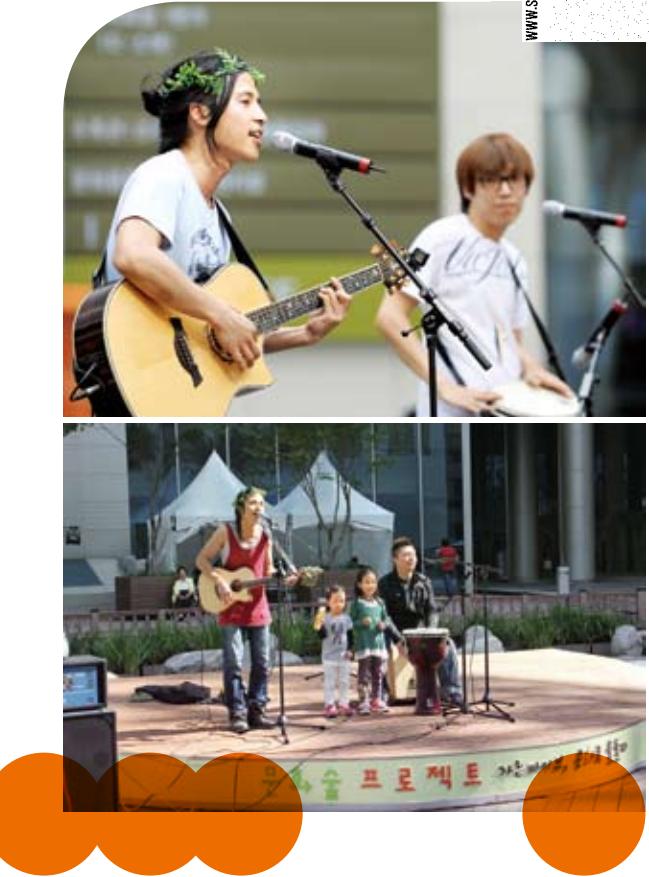
보여준다, 가 아니라 같이 노는 것 같다. 거리공연은 그게 안 되면 끌고 가기 어렵다. 간단한 문제를 내서 관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도저히 틀리기 어려운 문제를 내고 맞히면 선물을 준다. 우리가 제작한 컵인데 ‘자연보호는 세계평화의 첫걸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넘다른 것 같다. 거리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더라. 사람이 모이는 곳은 왜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걸까. 인간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진짜 깨끗한 건 뭘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는 없을까, 의문점을 계속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한다. 제대로 전달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누군가 브리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가가 그런 활동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거리공연에서 생긴 수입을 기부하기도 한다. 거리공연을 하면 신기할 정도로 돈이 쌓인다. 통영에서 공연을 할 때는 30만 원이 넘게 생겼다. 하루 술 마시면 끝날 돈인데 그렇게 써버리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통영의 장애인단체, 예술인단체에 기부를 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된다.

기드너로 뽑혔다. 서울 동남권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것 같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인데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 아기들 손잡고 오시는 분이 많다. 지역마다 많이 생기면 좋겠다. 홍대는 거리공연에 각종 이벤트가 넘치는데 다른 곳은 너무 없지 않은가.

올해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생각으로 동묘위주로 공연할 생각이다. ‘넌 어디서 왔니’란 노래가 있는데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곡이다. 요즘 애들은 사과를 마트에서 만드는 줄 안다. 마트에만 가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한편에서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연을 모르고 살아간다. 노래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같이 활동하는 정현이가 아동가족학과 학생이다. 많은 의지가 된다.

가드너로서의 각오가 있나. ‘가든파이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문화숲 프로젝트> ‘가드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재밌는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요술당나귀와 함께 자연보호, 세계평화를 함께 외치자!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시민 예술가
거리공연 가이드



마린보이



camsun 캐리커처

아이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날씨는 덥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면, 거리공연의 열기와 함께 이열치열의 여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시민 예술가들이 주역이 되어 만드는 열린 무대, 추천할 만한 7월의 거리공연을 한데 모았다.

서울거리아티스트 베스트 3

마린보이

〈스타킹〉 출연으로 더욱 유명해진 마린보이 이성형 씨의 청계천 무대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태양의 서커스'로부터 감명을 받아 저글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그는 저글링의 상징이라 할 공을 비롯해, 미니 자전거와 빨간 자동차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웃음을 자아내고 신기한 기술을 선보인다. 불을 이용한 저글링을 시도하거나 공중팽이 놀이 '디아볼로'를 시작할 때면 지켜보는 관객조차 긴장감으로 식은땀이 흐를 정도. 단순한 묘기가 아닌,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이라 더욱 즐겁다.

camsun 캐리커처

청계천 나들이가 즐거운 이유. 바로 눈으로 보는 공연뿐만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희화화한 재미있는 캐리커처를 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광고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캠순이 박승희 씨는 사람의 외모에서 특징을 잡아내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탄생시키는 캐리커처 전문 작가다. '생긴 대로 살자'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담벼락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 이젤 앞에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아 캠순에게 모든 걸 맡겨보자. 완성된 그림을 받아들고 한바탕 웃을 준비만 하면 된다.

비버의 숙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매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서울거리아티스트 한 팀을 선정, 이달의 아티스트를 발표하는데, '비버의 숙제'는 바로 5월의 아티스트라는 영예를 안은 팀이다. 인디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베이시스트 박상홍과 류재영으로 구성된 비버의 숙제는 브리질 보사노바 리듬을 기반으로, 노래와 연주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경을 그린다. 비버의 숙제가 추구하는 '유머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통경하는 이라면, 청계천에 올려 퍼지는 보사노바 선율을 놓치지 말자.

서울거리아티스트의 자세한 공연 일정은 매달 25일경 서울거리아티스트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seoulstreetart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요한



재능나눔 봉사단의 나눔 공연

시울雲 7월 9일 오후 6시 |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

수차례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우리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해 드라마틱하고 색채감 넘치게 표현한다”라는 호평을 받은 그룹 ‘시울雲’의 콘서트가 열린예술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들은 2005년 3월 프로젝트 그룹 ‘GM(Genuine Music)’으로 창단한 이후, ‘전통음악의 재창조,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모토로 우리 음악의 매력을 현대 대중에게 소개하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지속해왔다. 현재에도 멤버 각자의 색깔을 찾아 자유로운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창작과 연주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 비평을 통한 공동 작업을 함께 모색해나간다. 구름 뒤의 빛으로 그 가장자리에 금빛 테두리가 생긴다는 ‘시울雲’의 뜻처럼, 감추어진 밝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나눔 무대를 놓치지 말자.

Break Big Band 7월 23일 오후 6시 | 서대문구 독립문 독립공원

Break Big Band는 재즈 트롬보니스트 이한진과 젊고 유능한 재즈 뮤지션들로 이루어진 재즈 빅밴드다. 최고의 브라스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쾌한 리듬을 중심으로 한 평키 재즈 음악을 추구한다. 최근 울산재즈페스티벌 신인재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떠오르는 신예 빅밴드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의 연주를 열린예술극장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13인조로 구성된 Break Big Band의 융장한 사운드와는 사뭇 다른, 주요 멤버 5인으로 구성된 좀 더 깊고 재즈스러운 음악을 연주한다.

재능나눔 봉사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능나눔 봉사단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harecult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초, 가드너를 만난다

머스트씽 디바 7월 2일 오후 12시(가든파이브 Zone 1~2)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새롭게 선발된 가드너의 무대가 6월부터 시작되어 기대를 모은다. 그 중에서도 ‘머스트씽 디바’는 정통 클래식에 뿐 리를 두고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팝페라를 추구하는 프로 중창단. 여섯 명의 프리마돈나들로 이루어진 머스트씽 디바는 클래식과 뮤지컬, 팝송, 가요 등을 접목하여 개성 있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비다 7월 2일 오후 2시 30분(Zone 1~2) | 7월 9일 오후 2시 30분(Zone 1~1)

나비다(Na Vida)는 이름다운 보사노바 선율로 세상에 온기를 전하겠다는 각오로 결성된 듀엣이다. ‘나비다’는 브라질어로 ‘인생 속으로’라는 뜻.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귀에 익숙한 보사노바 선율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드너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비롯, 유명 대중가요와 팝송을 보사노바 풍으로 리메이크한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수요한 7월 2일 오후 4시, 5시 30분(Zone 2) | 7월 3일 오후 3시 30분, 5시(Zone 1~2) | 7월 9일 오후 1시 30분(Zone 3) | 7월 10일 오후 5시, 6시 30분(Zone 3)

2010년 ‘Even Sky’라는 팀명으로 가드너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올해는 ‘수요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든파이브 무대에 선다.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 가드너가 되었다는 수요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밸리비아 공연단 7월 3일 오후 12시 30분, 2시 30분(Zone 1~2)

밸리비아 공연단은 가든파이브 무대에 화려한 퓨전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인 공연단은 섬세함과 여성스러움을 갖춘 고난이도의 동작을 보여주며, 주니어 공연단은 성인 공연단과 함께 깜찍함과 발랄함이 함께하는 무대를 꾸밀 계획. 이집트에서 내려온 여신 같은 모습의 댄서들이 만드는 이름다운 무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가든파이브로 향할 것.

가드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순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5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연희동까지

노벨상 수상작가 르 클레지오의 서울 예찬

문학기

● “좁은 골목길, 한옥, 고인 전선줄, 하늘을 가득 채운 인왕산….”

그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땅부터 하늘까지 눈으로 훑었다. 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북촌 한옥마을 ‘동양문화박물관’ 앞 풍경을 두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런 맛에 한국 온다”라고.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 장 마리 쿠스타브 르 클레지오는

이날도 서울의 거리를 거닐었다. 그가 말하는 ‘맛’이란 현대적 감각(곧게
뻗은 건물)과 전통(한옥마을) 문화의 조화를 뜻한다. 2001년 5월 이맘때
처음 서울을 찾은 그는 10년째 한국과 서울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지한파(知韓派)’인 그가 말하는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 티셔츠에 샌들,
간편한 차림으로 북촌 한옥마을 산책을 나선 그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처음에는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동네 후미진 골목길, 전깃줄 위에 앉은 참새, 잘 알려지지 않은 냉면, 해장국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더 재미있다. 돌아다닐 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제 맛인 듯하다.”

르 클레지오는 1년에 최소 한두 차례 한국에 와 서울 거리를 걷는다. 이번에도 5월 25일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문화창작촌’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세계 문학 거장 초청 낭독회 ‘세계 작가 연희하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행사는 단 하루지만 그는 서울과 제주도 등을 여행할 계획으로 6월 중순까지 머물기로 했다. 그는 낭독회에서 〈허기의 간주곡〉을 낭독했다. 자신의 작품을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다.

“〈허기의 간주곡〉은 2008년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집필한 대표 작품이다. 내 작품을 내가 소리 내서 자주 읽지는 않지만 몇 번 경험은 있다. 이번에 〈허기의 간주곡〉을 읽을 때 중간에 독일어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어려웠지만 흥미로웠다.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서울에 오면 길거리 한국어 간판은 한 번씩 소리 내어 읽곤 한다. 모르는 단어를 읽는다는 것은 때론 ‘매지컬’하게 느껴진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느리게 걷는 작가

간판의 한국어는 낯설지만 서울 신촌이나 경복궁 등 즐겨 찾는 곳은 익숙할 듯했다. 평소 서울에 오면 어딜 주로 다니는지 물었다.

“2007년 교수로 재직했던 이화여대 앞, 신촌 지역은 잘 알고 있다. 큰 도로변 말고 좁은 골목길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엉켜 있는 전봇대 전깃줄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참새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1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나도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유명한 동네 위주로 둘러봤다. 지금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식물을 보고 경복궁, 한옥마을에 가서 옛 정취를 느끼는 것이 더 좋다. 특히 ‘옛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옥마을에 자주 간다. 물론 다닐 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가 서울의 문화 아니겠는가.”

그는 최근 박찬욱 감독을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박 감독이 ‘서울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조금만 떠나 있어도 어색하다’라는 말을 했다”며 “그것이 느릿한 도시인 파리가 갖지 못한 서울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르 클레지오가 좋아하는 것은 서울의 자연 풍경이다. 한옥마을을 도는 내내 그는 “이 한적한 길거리를 그냥 필름에 담아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대한 애정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일까. 그에게 문자 그는 “좋은 질문”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서울 와서 소설가 이승우의 작품 〈식물들의 사생활〉을 읽고 책 속에 나오는 ‘연꽃 시장’이라는 장소를 찾기 위해 무작정 서울 곳곳을 걸었다. 그러다가 청계천을 걷다가 ‘아 이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못 찾았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걸으면서 만난 길거리 행인들의 표정, 한국어 간판은 서양에서 느끼지 못한 문학적 자양분으로 남은 것 같다.”

1940년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태어난 르 클레지오는 1963년 데뷔작 〈조서〉로 프랑스 문학상인 르노도상을 받았다. 〈사마〉을 비롯해 〈홍수〉 〈성스러운 세 도시〉 〈혁명〉 등의 대표작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출신임에도 비서구적이고 친자연적인 작품 세계를 보인 그는 2001년 전남 화순군 운주시를 둘러보고 〈운주사, 가을비〉라는 시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지한파가 됐다. 2007년에는 이화여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다. 올가을에 발표할 옴니버스 단편집 〈발비탁 이야기〉에도 서울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과 지하철 속 풍경 등을 녹였다. 문득 왜 서울이, 왜 한국이 좋아졌는지 궁금했다.

“10년 전 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작가 포럼 참석차 서울에 왔다. 처음 방문을 했음에도 서울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서울의 자연 풍경이 그랬다. 분명 대도시임에도 곳곳에 녹아든 자연 풍경이 도시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져 있었다. 한강도 그랬고 경기 강화도도 그랬다. 내 느낌에 한국은 ‘에스닉’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아직도 신발 벗고 들어가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문화라든지… 과거와 현재, 나무와 고층건물, 전통문화와 모던한 문화 등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



© 동아일보

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조화된 모습이다.”

6월 8일에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그에게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하고 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과거 유럽의 유명 잡지인 〈지오(GEO)〉에 “제주 사람은 늘 바다로 향한다. 바다는 고기를 제공하고 뱃목을 제공한다. 바다와 죽음의 이상한 근접. 여행자를 감싸는 우수의 감정이 태어나는 곳이 여기다. 진실하고 충실하고 환상적인 제주, 모든 계절에 그렇다”는 산문(제주찬가) 등을 기고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린 공로다. 그는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은 후 “제주는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이 있는 섬”이라며 제주도를 예찬

했다. “새가 날아가다가 아름다운 곳에 내려앉고, 아름다운 곳을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주를 찾았다”며 문학적인 소감도 잊지 않았다.

새 지저귀는 연희동에서 쓰고픈 어떤 소설

서울에 자주 오고 한국 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프랑스인은 비단 르 클레지오뿐만은 아니다. 그는 한국과 서울을 잘 모르는 프랑스인 동료도 ‘냉면’과 ‘설렁탕’ 등 한국 음식은 잘 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 한국 식당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

“

‘옛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옥마을에 자주 간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가 서울의 문화 아니겠는가.

”



© 동아일보

이라고 속이고 한식당을 차릴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인기도 한몫한다. 최근 파리에서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 콘서트를 보기 위해 10대 프랑스 학생들이 몰리는가 하면 파리 길거리에 한식당도 생겨났다. 그는 “유럽 등 서양에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한국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에게 서울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흥미로운 답을 했다.

“새가 지저귀는 연희문화창작촌에서 다음 작품을 쓰는 게 꿈이다.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소나무가 울창했고 새가 지저귀고… 작가가 작업하기 좋은 곳 같았다. 단편소설을 쓰더라도 연희동에서 한 번 써보고 싶다.”

그는 연희동이 저녁에 시끄러운 편인지 궁금해했다.

“한국 작가가 많이 모인 곳이라 들었다. 게다가 학생이 많은 신촌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기껏 연희문화창작촌에 입주했는데 한국 작가들과 어울려 한잔하고 그러다가 작품 못 쓸까봐 겁난다. 하하.”

인터뷰 말미, 그에게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점

을 보완해야 하는지 물었다. 애정이 있는 만큼 충고도 아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했다.

“교통과 도시 공해 문제. 그것뿐이다. 차 막히는 건 정말 문제다. 그 많은 차에서 나오는 매연까지.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타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서울이 바라는 디자인 도시, 관광 도시의 본모습 아닐까.”

•

르 클레지오는 1940년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났다. 1963년 첫 소설 〈조사〉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르노도상을 수상하고, 이후 〈열병〉 〈홍수〉 〈물질적 황홀〉 등 화제작을 잇따라 발표했다. 2008년에는 ‘인간성 탐구, 관능적 엑스터시, 시적 모험, 새로운 출발의 작가’로 평가받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문단의 살아 있는 신화이자 가장 아름다운 프랑스 어를 구사하는 작가로서 창작과 함께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그는 현재 자발적 유배자의 삶을 살며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 대산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빙한한 이후 대표적인 지한파 작가가 되었고,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로서 한국 문학과 영화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대표작으로 〈성스러운 세 도시〉 〈우연〉 〈황금물고기〉 등이 있다.

르 클레지오의 목소리로 듣는 <허기의 간주곡>

세계 문학 거장 초청 낭독회 ‘세계 작가 연희하다’



© 김병구

르 클레지오는 지난 5월 25일,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열린 세계 문학 거장 초청 낭독회 ‘세계 작가 연희하다’에 참석,

자신의 작품 <허기의 간주곡>의 일부를 낭독했다. 작가가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줬던 낭독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유대교 회당 근처에 있는 사진 박물관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라 툴라트 포름의 중심이 높이 솟아 있었던 그 하얀 꿀뚝과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나는 예비에 장소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르다. 사진 속 얼굴들은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와 마음 깊은 곳까지 억지로 길을 뚫고 기억 속으로 들어온다. 이명의 얼굴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얼굴들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의 현실에 충격을 받는다. 예전에 우리도 가의 문세보관서에서 낭트, 브르도, 마르세유로 퍼져간 노예들의 기록장 부록을 읽었을 때처럼.

마리옹, 카프레스, 일드 프랑스, 큐보, 카프레스, 일드 프랑스, 라강, 말바르, 풍미세리, 화나세, 말가슈, 앙동지, 토마, 뮐라르트, 부르봉. 아이들은 트랙 가장자리에 서 있고, 어른들은 뒤쪽에 있다. 드랑시의 거대한 건물을 아래, 사르트루비 뷔에이, 트랑시의 새 거울 건물을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긴 건물을 그들은 계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두꺼운 외투를 입었고, 아이들은 베레모를 썼다. 맨 앞줄에 선 아이들 중 하나는 가슴에 별을 달고 있다. 그들은 차례로 레인지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마치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식들이 곧 주유리하는 걸 모른다.

어떤 지도에서 나는 공포의 지리학을 읽는다(이하 지역들은 제각각 세계대전 당시 노동 수용소나 철거될 수용소가 있던 곳들이다).

풀스부델, 노이엔가메, 에스테르베겐, 화이센브루크, 작센하우젠, 오라마이엔부르크, 트레볼링카, 헤르토겐부스, 베르겐베겔렌, 쿨름호프, 몽강겐, 도하, 트리히텐베르크, 소네브르, 니더하겐-베베일스부르크, 바트줄차, 후불린마이다네크, 부히탈트, 작센부르크, 그로스-로젠, 벨제크, 테레시엔슈타트, 톨라스초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히테르트, 톨센센부르크, 나츠바이탈레-슈트루트호프, 다하우, 마우트하우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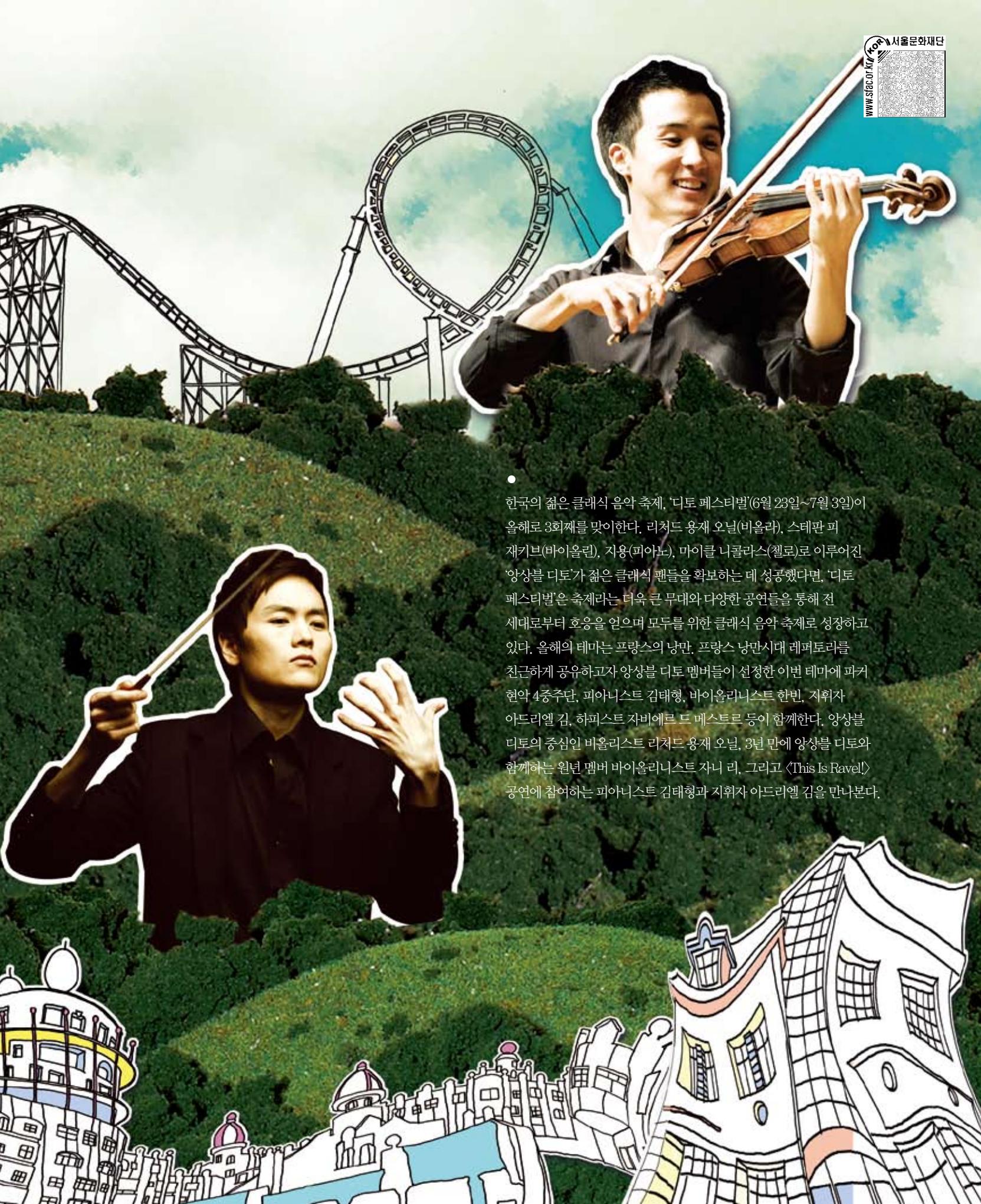
그리고 드랑시, 후아이트리히, 페터비에, 페터비에와 디 사바, 불차노, 보고산 달모아초, 벤디미글로바 같은 환승역의 이름들. 그곳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직업 살펴보고, 그곳에서 삶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곳에 삶은 나무, 개껌비, 비문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의 얼굴들,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 울부짖음, 웃음소리, 그 부근에 있는 마을들의 소리, 지나가는 시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세 남자가 초대하는

디 토 페 스 티 벌 아 티 스 트 4 인

프랑스 음악 여행





한국의 젊은 클래식 음악 축제, '디토 페스티벌'(6월 23일~7월 3일)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스테판 피 재키브(바이올린), 지용(피아노), 마이클 나콜라스(첼로)로 이루어진 '앙상블 디토'가 젊은 클래식 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 '디토 페스티벌'은 축제라는 더욱 큰 무대와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전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모두를 위한 클래식 음악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의 테마는 프랑스의 낭만. 프랑스 낭만시대 레퍼토리를 친근하게 공유하고자 양상을 디토 멤버들이 선정한 이번 테마에 파커 현악 4중주단, 피아니스트 김태형, 바이올리니스트 한빈, 지휘자 아드리엘 김, 하피스트 자비에르 드 메스트르 등이 함께한다. 양상을 디토의 중심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3년 만에 양상을 디토와 함께하는 원년 멤버 바이올리니스트 자니 리, 그리고 <This Is Ravel!> 공연에 참여하는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지휘자 아드리엘 김을 만나본다.

나는 행운아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리스트

Richard Yongjae O'Neill



양상블 디토가 프로젝트 팀이기에 갖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작품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악 4 중주나 피아노 4중주와 같이 형태가 정해진 양상블의 경우 작품 구성에 제한을 받겠지요. 그러나 디토는 프로젝트 양상블이기 때문에 매년 다른 악기 조합을 통해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상블 디토의 멤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나요?

긴밀한 대인관계는 양상블의 음악적 역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요. 개개인에게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특정 인물을 특별히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개개인 모두가 무척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대개의 양상블에서는 피아노나 제바이올린 주자가 음악적으로 리더 역할을 맡습니다. 비올라 주자가 리더를 맡은 디토만의 특징이 있나요?

‘리더’라는 단어는 사실 기만적이지요. 디토의 프로그램과 멤버 구성을 제가 맡고 있지만, 양상블을 리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뿐입니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나요?

우리는 매년 주제를 정해서 디토 페스티벌을 꾸며왔는데, 언젠가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꼭 한 번 꾸며보고 싶었지요. 올해 프로그램 전반에 프랑스 음악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7월 3일 양상블 디토의 리사이틀은 드뷔시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네〉, 라벨 피아노 3중주 A단조, 포레 피아노 4중주 C단조 등 프랑스 음악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첫 해외여행을 갔던 곳이 프랑스이기도 했고,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인상주의 그림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각 멤버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쇠라의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토의 프로그램과 멤버 구성을 제가 맡고 있지만, 양상블을 리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뿐입니다.”



여러 차례 파리의 센 강을 걸으면서 저는 쇠라의 미학에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수많은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구성한 그의 기법을 좋아합니다. 점묘주의 기법은 음악에도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수많은 점으로 그림을 만드는 이 기법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스크린이 픽셀로 구성되는 점과의 연관성 때문에도 흥미롭지요. 저는 카리브 해에 있는 프랑스 섬인 세인트 바르셀레미에서 1월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데, 이러한 목가적인 분위기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실내악의 핵심

자니 리
바이올리ニスト

J o h n n y L e e



LA 필의 중신단원으로 재직하는 한편 클리블랜드·에마슨·줄리아드 협약 4종

주 등 여러 세계적인 실내악 악단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시
즌까지 함께한 양상을 디토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양상을 디토는 음악을 함께 만드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연배로 구성된 디토는 비슷한 배경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정서적으로 무척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지요. 이러한 단원들 간
의 인간적인 호흡이 우리의 음악을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것 같
습니다.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활동에 특히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내악은 협력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음악은 청중
과 동료 음악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예술이
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은 실내악의 핵심입니다.

지난 2년간 왜 디토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했나요?

LA 필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맞지 않아
2009년부터는 참여를 할 수 없었네요. 지난해 가을 기획사 측에
서 양상을 디토뿐 아니라 제 오랜 친구들인 파커 협약 4종주단과
함께 연주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
인 제안이었지요.

6월 28일 리사이틀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올해 디토 페스티벌의 주제가 프랑스 음악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
문에 프로그램에 우선 프랑스 작곡가의 소나타를 두 개 배치했습
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대중적인 데 비해 프랑크의
음악은 덜 알려져 있지요. 심지어 바이올리ニ스트들 중에도 프랑
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모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작
품을 축으로 드보르자크의 소나타나와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
이젠〉을 배치했습니다. 이들 두 작품은 프랑스 음악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즐겨 하는 작품들이지요.

**이번 디토 페스티벌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중 관객에게 추천할 만한 프랑스 음
악을 말씀해주십시오.**



매력적인 프랑스 관현악 작품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
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라발스〉와 〈다프니스와 클로에〉를 포함
한 라벨의 작품은 그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
다. 프랑스 오페라도 아름다운 작품이 많지요. 2003년 미국 스풀
레토 페스티벌에서 들리브의 〈라크메〉를 연주했는데, 요즘도 종
종 듣는 곡입니다.

처음 프랑스 음악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20대가 되어서야 프랑스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상스나 비외탕
의 작품과 같은 몇 개의 곡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음악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우선 크라이슬러나 파가니니, 브루흐의 작품부터 배워
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모두 베토벤과 브람스를
배우고 싶어하지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하거나 포레나 라벨의 실내악 음악을 배우
고 나서야 진정으로 프랑스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법

아드리엘 김
지휘자

A d r i e l K i m

●
지난해 11월부터 도이치 라디오 필의 어시스턴트 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라디오 필의 상임지휘자인 크리스토프 포펜과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포펜은 2009년 제가 파놀라 국제 지휘 콩쿠르에 출전했을 때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후에도 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다가 지난해 제게 부지휘자(어시스턴트 지휘자) 제의를 하셨죠. 제가 하는 일은 상임지휘자의 리허설 및 연주에 항상 동참하고, 리허설을 지휘하는 한편 상임지휘자와 단원들과 대화하면서 음향 밸런스와 음악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지요. 첫 공식 연주는 2012년 카이저슬라우테른과 자르브뤼켄에서 각각 가지며, 앞으로 교육 콘서트들도 지휘할 예정입니다. 포펜과 함께 일하면서 단원들과 하나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디토 페스티벌에서 호흡을 맞춘 디토 멤버들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나요?

앙상블 디토 멤버 모두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들이라는 점과 동시에 솔직하고 순수한 음악가들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의 특징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하면서도 전체의 앙상블을 놓치지 않고 이상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더 좋은 연주를 위해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리드해가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음악의 매력에 깊이 몰두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를 해서인지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와 독일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거기에 먼저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빈 국립 음대 재학 중 드뷔시·라벨 등을 공부하며 프랑스의 색다른 음악적 언어와 미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드뷔시 〈목신 오후의 전주곡〉은 새로운 음악 언어의 발견이라고 할 만큼의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7월 29일 〈This Is Ravel!〉 공연의 프로그램은 직접 구성한 것인가요?



〈볼레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라벨의 여러 가지 음악적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전 악장이 아닌 한 악장씩만 프로그램에 넣었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레퍼토리들로 구성했습니다. 〈스페인 랩소디〉의 마지막 악장 페스티벌로 스페인풍의 화려한 오프닝을 가진 후 재즈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특색을 지닌 라벨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2부에는 〈어미 거위 모음곡〉 중 마지막 악장에 이어 화려하면서도 비루투 오소적인 짚시 스타일의 치간을 바이올리니스트 한빈의 협연으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볼레로〉가 끝을 장식하지요. 공연을 본 후 라벨의 다른 작품을 듣고 싶다면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을 추천합니다.

〈볼레로〉는 작품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건축적인 이미지를 염두에 둔 영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영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볼레로〉의 테마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다면, 건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형상이 기괴하면서도 조화롭게 그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애잔하고 슬픈, 알 수 없는 모호한 감정

김태형
피아니스트

T a e - H y u n g K i m



●
2009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디토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그간 자신에게 어떠한 음악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참신하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싶었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 일종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대 위에서의 저 자신을 그때보다 두 배는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뚜렷한 상을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아름다운 작품으로 리발 피아노 협주곡을 꼽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성악가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 음악은 청중도 그 음악을 듣기 위해 집중을 하고, 연주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프랑스 음악은 음악이 그냥 연주되어져야 한다. 그곳에 그대로 있는 음악이 자연히 연주되는 것을 느끼면 된다.” 이 곡은 지극히 프랑스적인 곡입니다. 특히 2악장이 지극히 아름다운 악장이지요. 프랑스 음악은 대체로 깊은 우수에 차기보다는 슬픈 듯하면서도 위트를 택하고, 내면의 느낌을 표현하지만 겉으로는 도도함을 잊지 않지요. 애잔하고 슬픈 듯하지만 그리움도, 알 수 없는 모호한 감정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슬프다’ 또는 ‘고통스럽다’가 아닌 ‘아름답다’로 정리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음악에 특별히 비중을 두고 공부했던 때가 있었나요?

프랑스 음악은 저와 참 잘 맞습니다. 뭔한 음대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독일에 대한 이미지나 색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여행으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따금 연주를 가도 ‘아, 이런 것이었지’ 하며 그 느낌이 금방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런 것들은 감각적이어서 잊기 어렵지요. 따라서 특별히 비중을 두고 공부하기보다는 평소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빠져들었던 공연은 무엇이었나요?

실황 공연의 큰 매력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몸짓, 혹은 꾸미지 않은 실제 음색이 들리기 때문이지요. 몇 달 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의 〈바그너 트리斯坦과 이졸데〉 공연을 봤습니다. 얀손스는 진실로 노래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끝끝내 터지는 클라이맥스에서는 지휘하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부르짖는 듯 지휘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연주였지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곧 독일에서의 공부가 끝나갑니다. 그동안 피아노 작품뿐만 아니라 슈베르트 · 말러 · R. 슈트라우스 · 리스트 · 라벨 · 포레 등 수많은 작곡가의 가곡을 배웠어요. 독일 가곡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에 유학하면서 꼭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는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엘리소 비르살라제 선생님 밑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입니다.



글_ 김여향 서울대학교에서 미학과 음악이론을 전공한 후 현재 월간 〈객석〉에서 음악과 무용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사진제공_ 크레디아



소멸과 생성이 뒤섞이는 도시에서

소설가 백가흠의 서울 만평



서울이 촌보다 더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의 문제는 공간에 있지 않다는 데 내 생각은 달아 있다. 도시의 분위기는 테마와 공간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개발을 통한 인위적 시도는 촌스러움을 극복할 수 없다. 현재 서울은 서울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도시개발이라는 것에 과연 문화는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과 겹쳐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울은 서울이 아니다. 서울의 문화는 실체 없으며, 이미지도 없다. 마치 거대한 공장의 모습이다. 있어야 할 부품이 있고,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이나, 식당 같이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일하는 데 필요한 공간만이 존재하는 공장의 이미지이다. 실용성만 강조하는 누군가의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의 도시는 왜 이러한 모습인가. 도시가 촌티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를 영유하는 사람들의 촌스러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실은 도시가, 서울이 촌스러

운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촌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촌스러운가. 우리에겐 문화가 없다. 우리의 도시는 문화가 없다. 문화가 없기에, 촌스러운 것이다. 혹자들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매주 주말이면 행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그 밖에 도시 전역 거리에서 펼치는 공연과 볼거리를 보지 못했냐고. 그렇다. 나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잘난 척한다고 재수 없어 하지 마시라. 적어도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정도 불평은 늘어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도시의 문화는 느낌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수준에 걸맞은 서울을 느끼고 만끽하고 싶다.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유흥과 문화를 혼동하지 않을 만큼만의 수준, 나는 서울에게 그것을 바란다. 이미 시민의 수준은 준비되어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연봉이 고액이지도 않은 내가 이 정도이니, 다른 이들의 수준은 어떠하겠는가.

전시(展示)와 행사(行事)의 반대말을 찾다가 포기해버렸다. 실질(實質)과 상시(常時) 정도가 될까? 이것이 도시가 가져야만 될 문화가 아닐까. 언젠가 외국작가들



이 즐비하세요.” 클럽문화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울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면, 클럽문화가 대표성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사람을 신경 쓰기 위해 문화적 콘텐츠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만 서울은 밤을 즐기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이미지의 오명은 씻어내야겠다. 거기엔 문화적 우월감이 가미된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이 좀 더 고전적이고, 예술적 미를 가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도시와의 비교는 기분이 상하니 생략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와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대판 유일신, 도시

우리는 모두 도시에 있거나 그 밖에 있다. 도시는 하나의 인격체이자 삶이다. 도시는 룰모델을 삼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들의 고독과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개인의 암울한 상황에 맞선 단독자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자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괴물이야말로 진정 모든 이들의 룰모델이다. 도시는 그레이만 한다.

도시의 생리와 혈류를 알지 못하는 자, 기생하지 못하는 자에게 위대한 삶은 허락되지 않는다. 부패와 소멸, 생성과 생명이 뒤섞여 발현되는 역동적인 삶의 표본이 도시이므로 우리는 도시를 이해해야만 한다. 도시는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와 예술이 뒤틀리되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도시를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현실 안에 병폐가 있고 대안이 있으므로 우리는 도시를 배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한다. 좋은 예든, 나쁜 모델이든 우리가 따라잡아야만 하는 ‘룰모델’은 이 도시가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생존을 알려주는 것 또한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시는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냉기도 하고, 인류애를 전사하기도 하며, 바깥의 종교를 고집하게도 하지만, 이 모두는 도시가 존재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모든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곧 태곳적 신의 역할임이 분명한, 신이 사라진 자리를 도시가 대신하고 있음이다. 아주 오래전 룰모델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가 찾던 답은 있어왔다. 인간은 오로지 신만을 동경하고 동조하며 룰모델로 여긴다. 결국 이 시대의 룰모델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을 찾는 미물들의 찬가인 것이다. 여기 룰모델로 삼을 만한, 언제나 우리의 룰모델이었던 현대 유일신 ‘도시’가 있다.

유일신 도시가 인간에게 진정 신이 되려면, 앞서 말했듯 문화의 신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도시라는 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지 않는 영원의 시간, 인간과 함께할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의 종결은 바로 ‘시간’에 있다. 정치적 논리나 목적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과 서울에서 작가대회를 한 적이 있다. 서울을 처음 찾았고, 생소한 이 도시에 대해 물었다.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디를 걸어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외국작가들이 물었다. 나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의 도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나는, 그들의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도시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 창피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을 못해서 당황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놀란 것은 이 도시에, 거의 20여 년을 살아온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나 스스로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작가가 건들거리면서 말했다. “홍대에 가야만 해요. 거기에 클럽, 아시아에서 제일인 클럽

일본인 뮤지션 하찌

음악으로 꿈꾸는 '남쪽 끝섬'의 여유

때론 아주 작은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1954년 도쿄 태생으로 1970년대 일본의 인기 밴드 '카르멘 마키 앤드 오즈'(Carmen Maki & OZ)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하찌(가스가 히로후미)는 우연히 만난 팽과리 소리에 반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음반 제작, 세션 등의 작업을 하며 한국으로 활동 거점을 옮긴 그는 2006년 '하찌와 TJ란 포크 듀오'를 결성해 본격적인 창작 작업을 시작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박한 가사와 담백한 음악으로 은근한 인기를 모으던 중 느긋한 선율과 후렴구가 인상적인 '남쪽 끝섬'이 유명해지면서 그 역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신명이 담긴 한국의 장단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하찌. 오늘도 그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유쾌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복작대는 서울 한구석에서 남쪽 끝섬의 여유를 꿈꾼다.



한국과의 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도쿄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봤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팽과리 소리에 첫눈에 반했죠. 저 재떨이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신이 날까, 저렇게 작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걸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 도쿄에서 장구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고장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악기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을 왔다갔다하면서 이곳에서 산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물놀이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제가 원래 선율이나 화성보다는 리듬을 좋아하고, 리듬이 강한



음악에 많이 끌려요. 사물놀이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도 심장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뭔가 신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 본 사물놀이가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최고를 맨 처음에 본 거죠. 어떤 악기든 마찬가지지만, 잘 못 다루는 연주자와 좋은 연주자가 만드는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네 분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단순히 흥에 겨운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훈련된 소리였고, 특히 이광수 선생님의 팽과리는 넓이 나갈 정도였어요. 아마 처음에 제가 그냥 보통의 풍물패 공연을 봤다면 그렇게 매력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풍물에 인생을 바친 분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발전된 소리를 만났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처음 한국에 와서 고(故) 최은창 인간문화재로부터 풍물을 배웠던 사연이 궁금합니다.

기왕 배울 거라면 풍물이 발생한 시골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평택 농악을 하시는 최은창 할아버지께 소개받았습니다. 그 선생님 댁에서 먹고 자면서 석 달 정도 꽹과리와 장구를 배웠지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말도 전혀 못하던 때라 그냥 선생님이 장구 치고 날라리 불면 똑같이 따라 하면서 배웠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밤이 되면 시내 나가서 소주랑 막걸리 마시고… 그런 날들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현재 국악이 아닌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운 풍물이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악기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 속에는 아직 그 장단이 흐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제 음악에 국악기랑 장단을 쓰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잘 안 되네요. 한국 장단이나 음악이 듣는 것과 달리 막상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좀 더 제 안에서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간 강산에, 전인권, 서우영 등의 음반 프로듀싱 작업을 맡아 했고, '하찌와 TJ'란 듀오를 결성해 〈행복〉과 〈별총총〉 두 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프로듀싱과 연주 활동 중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낍니까?

둘 다 좋아요. 노래하는 건 물론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저는 녹음 작업도 좋아해요. 그림 그릴 때도 일단 여러 가지 습작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완성된 그림을 내놓잖아요. 녹음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잘 다듬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라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음반이 안 나가는 시대여서 우리에겐 한겨울이지만요.

현재 아내와 두 딸은 일본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활동할 계획은 없는지요?

재작년부터인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언어도 부족하고 발음도 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중심으로 노래를 하거나 솔로로 활동하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 새 앨범 준비와 일본 지진으로 잠시 주춤했는데, 슬슬 다시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일본 진출' 해야죠. 하하.

‘별총총’ ‘남쪽 끝섬’ ‘아지랑이’ 등 그동안 만든 노래 제목이나 가사를 보면 쉽고 소박한 한국어를 쓴 것이 많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딱 그 정도입니다. 사실 가사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한테 들려주려면 일단 스스로 무슨 노래인지 알아야 하고, 발음도 잘해야 전달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내용보다는 내 주변, 일상생활에서 들은 말들을 주로 쓰게 되었지요. 요즘도 이야기하거나 술 마시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메모를 합니다.

하와이 민속악기인 우쿨렐레를 비롯해 통기타, 하모니카 등 소박한 사운드를 내는 악기를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런 악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규모가 크고 무거운 음악보다는 밝고 소박하고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우쿨렐레 같은 경우 '하찌와 TJ'가 이 악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좀 기여를 했죠. 이 악기는 일단 가볍고, 무엇보다 음색이 아삭아삭하다고 할까요. 소리 자체가 뭔가 사람의 정신을 상

펭과리 소리에 첫눈에 반했죠. 저 재떨이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신이 날까.
 저렇게 작은데 어찌면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걸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큼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소리에 위로를 많이 받아서 참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최근 '하찌와 애리'라는 새로운 밴드를 결성해 7월 중 음반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찌와 TJ'와는 또 어떻게 다른 음악을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국적, 나이, 세대 이런 걸 다 뛰어넘은 만남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같이 듀오를 하게 된 황애리 씨는 국악을 전공한 친구예요. 예전에 어떤 무대에서 기타를 치면서 '한오백년'을 부르는 걸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음반에서는 창이 나 소리 같은 국악 요소는 전혀 없이 그냥 가볍고 행복한 음악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TJ와의 작업과 특별히 다른 점을 못 느끼는데, 듣는 분들이 판단해주시겠죠.

한국에서 음악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과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음악으로 먹고사는 건 어딜 가나 쉬운 일이 아니죠. 다만 일본은 시스템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 작업하면서 편한 부분은 있어요. 저작권이나 인세 같은 것도 정확하고. 대신 일본은 시스템이 너무 꽉 짜여 있다 보니 스케줄도 빠빠하고, 뭐든지 딱딱 끊어져서 숨 막히는 부분도 있어요. 틈을 안 준달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좀 헐거운 부분은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웬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좋고 싫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홍대 앞 클럽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홍대 앞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곳에 가면 늘 뭔가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좋죠. 또 음악 하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약속하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고요. 지나가다가도 마주치고,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도 되고 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니까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대 앞에서 오래 살아서 한동안 그 근처 카페나 시장 가는 걸 좋아했는데, 일년 전에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요즘은 3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안국동에 지인이 살아서 그 동네를 자주 갑니다. 근처 북촌 문화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끼리 막걸리도 마시고, 그 부근은 뭔가 옛날 한국 분위기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정겨워요. 식당이나 술집 가도 인심이 좋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짬뽕 음악이에요. 우쿨렐레와 기타, 국악 기를 사용해서 작고 아기자기한 음악도 만들어보고 싶고,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의 거친 리듬을 쓰는 아주 센 록 음악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음식도 전 한국 반찬이 좋거든요. 한 상에서 전도 먹고 나물도 먹고 국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음악도 미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다 맛보고 싶은 거죠.



연극 더라인

연구 속으로의 특별한 체험

연극, 그리고 연극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연극의 거리 대학로와 친해지는
기회를 드립니다.

7.24 12:30pm



주최 서울문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四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협회

후원  SOUL OF ASIA



• 이달의 표지 작가 이민혜

서울시청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수작업과 그래픽 작업을 병행하여 그림책, 사보, 잡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2008년 일러스트 듀오 전 〈인생은 봄봄봄〉, 2009년에는 디자인 큐브 전 〈감정의 연막들〉에 참여했다.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주제를 정제된 일러스트로 표현,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위트 있게 담아내려 한다.

「문화+서울」이 주목한 7월의 작품



1



2

일상의 소소한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

작품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인물이나 주제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아저씨들을 자주 등장시킨다. 검은 양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배나온 아저씨들. 사회적이거나 무거운 주제보다는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은 감정을 담아 피식하고 웃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자 한다. 개인적인 작품 활동과 함께 흥보물, 매체 등 상업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나의 작업이 휴대폰 화면이나 그림책 등 2차적인 결과물 안에 담길 때 또 다른 매력을 얻게 되는 것 같다. 보다 폭넓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력을 얻는다. 신당청작아케이드에서 작업하는 건 어떤가?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언제나 자극을 받는다. 주변 교통도 좋아 상품제작을 할 때 편리하다. 소품 브랜드 '페코 마트'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페코 마트 (www.pecomart.co.kr)는 위트 있는 소품을 제작하는 문구 브랜드다. 신당의 이성진 작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픽을 담당한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페코 마트라는 브랜드를 더욱 키워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싶다. 작가로서는 글과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꿈이다.

1 〈Summer of Seoul City〉, 디지털, 594×841mm, 2009

2 〈The Holy Water〉, 디지털, 500×800mm, 2009

남산예술센터 상주예술가들을 만나다

극작가가 극장에 산다는 것



극장에 예술가가 산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상주예술가제도는 극장에 상주작가, 상주연출가를 두어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극장과 예술가 개인을 매칭한다는 점에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제도와는 맥을 달리한다. 영국 런던의 로열코트 극장, 에든버러의 트레버스 극장, 독일 베를린의 샤우부르네 극장과 같은 유럽의 유수 극장들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산예술센터가 2010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작년 9월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동이향, 김지훈 작가는 올 6월까지 10개월여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 낭독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을 앞두고 있는 동이향, 김지훈 작가를 만나보았다.



상주예술가제도는 2년 전, 남산예술센터가 재개관하면서 제작극장을 표방하며 내세운 몇 가지 사업기획 중 주요한 하나였다. 극장 성격에 부합하는 창작인력들을 극장의 상주예술가로 선임하고, 창작환경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결과물을 레퍼토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첫 시행으로 상주극작가제도를 위해 작년 7월에 내부와 외부전문가들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다추천자인 동이향, 김지훈 작가가 상주극작가로 선임되었다.

동이향 작가는 2001년 혜화동1번지에서 극단 신기루 만화 경정기공연으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숲을 이룬다>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기찻길 옆 오막살>, <해님지고 달님안고>를 무대에 올렸고, 2008년에는 연출을 겸하면서 첫 연출작인 <어느 날 문득, 네 개의 문>이 서울문화재단 NArT 젊은 예술가 지원작으로 선정, 2010년에는 남산예술센터 신진연출가전으로 <당신의 잠>을 공연했다. 2007년 국립극장 창작공모전에 <해님지고 달님안고>가 가작으로 당선되었으며, 2009~2010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영 아트 프로토이어로 선정된 바 있다.

김지훈 작가는 200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2006년 대산대학문학상에 희곡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희곡활성화 지원작품에 선정된 <원전유서>는 2009년 동아연극상에서 대상, 희곡상, 연출상, 여자 연기상, 무대미술 기술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원전유서>는 제1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 작품상과 여자 연기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7에도 선정되었다. 그 후 <벙바닥 긁는 남자> <길바닥에 나 앉다>를 연달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 <벙바닥 긁는 남자>는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 무대미술 기술상 등을 수상했다.

동이향, 김지훈 작가 모두 최근 사회에 대한 도발적인 메시지와 새로운 무대언어에 대한 실험정신으로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라 할 수 있다. 동이향 작가가 일상을 소재로 사

회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 김지훈 작가는 거대 서사 구조로 연극적 특성이 녹아 있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했던 작업들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동이향 작년 9월에 선정되어 10월 연희문화창작촌에 입주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 6월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낭독공연을 통해 수정을 해나갈 것이고 애초에 쓰고자 했던 희곡도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훈 그동안 <풍찬노숙>이라는 희곡을 탈고했다. 좀 늦어진 감이 있다. 지금은 9월에 있을 공연을 준비 중이다.

우리에게 작업실이란

이쉬움도 있었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 부담도 있었을 것 같다. 상주극장가는 공연창작 예술인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단편적인 제작 참여가 아닌 극장의 성격, 지향점부터 무대 구현에 이르기까지 극장 자체의 기획과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작가 지원제도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첫 상주극작가로 지내본 소감은 어떠한가.

동이향 지나고 보니 극장과 같이 개별단계에서부터, 연극관객이 아닌 일반인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희곡을 쓰고 하는 진행과정을 같이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작년에 남산예술센터에서 <당신의 잠>을 연출했는데, 그때 극장 공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주작가라면 극장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이용해야겠다는 욕심도 있고 일반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동시대의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김지훈 글 쓰는 사람들은 변수가 많다(김지훈 작가는 열흘 전에 노트북 하드웨어에 문제를 생겨 그동안 써놓은 희곡이 다 날아가버렸다. 그나마 이메일로 전송해놓은 것 이 있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더구나 어떤 임무 혹은 의무를 가지고 써야 해서 정말 부담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극장장님께 자유를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쳐박아놓고 내버려두라고.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

동이향 아르코 영 프로토이어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다. 작업자의 기획서를 받아서 선정하고 실현과정을 평가받는 제도였는데, 그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다. 작가 단독으로 취재를 하는 게 여전상 쉽지 않은데 지원을 받아서 취재도 마음껏 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로 워크숍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상주극작가로 있으면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김지훈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글



1 김지훈 작가의 연극 〈원전유서〉.
2 동이향 작가의 연극 〈당신의 집〉.

이 나올 때까지 내버려두는 자율성이 더 중요했다. 연희문화창작촌에 작업실을 제공해줬는데 이런 공간을 처음 가져봐서 황송하기도 했지만 좋았다.

동이향 나도 작업실이란 게 생겼다니, 누군가에게 글 쓰러 작업실 간다고 말할 때 뿐듯 하더라. 작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김지훈 나는 때때로 다르다. 도서관이나 카페, 아무 데나 좀 이동하면서 쓰는 편이다.

제도에 대한 이슈들은 없었나. 다음 기수들을 위해 건의할 것도 좋고.

김지훈 나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데, 텍스트를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다. 이운택 선생님이 옆에서 난리를 쳐도 안 줬다. 보여줄 때가 되면 내놓았다. 그런데 여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이라는 게 있어 달랐다. 올해 공연까지 염두에 두었는데 미처 일정을 계산하지 못했다. 항상 두 달 만에 공연을 만들어내는 집단에만 있다 보니 두 달 전에 대본이 나오면 되는 줄 알았다.

동이향 처음에는 작품 구상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게 하염없이 지나버렸다. 올 상반기에 다른 작업이 잡혀 있어 집중을 못했던 탓도 있고, 그럴 때 드라마티그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극장은 연극인들의 집

7월에 발표할 낭독 공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김지훈 작가는 〈풍천노숙〉을, 동이향 작가는 〈잊혀진 부대〉(가제)를 발표한다.

김지훈 언젠가 시골에 가보니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아이가 사투리를 쓰는데 피부색이 엄마와 달랐다. 그 장면이 참 충격이었다. 나중에 노인들 없어지고 나면 시골이 공동화가 될 텐데 그때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 10~20년 후면 벌어질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교정신이 뿌리박힌 보수성이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 그러나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홍길동 같은 인간형을 그려보고 싶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한국인이고, 천재적인 걸출함이 있는 것이다. 특정한 시대나 공간보다는 신화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했다.

동이향 5년 전에 몇 개의 장면들을 써놓았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사회에 문제시되고 있는 '자살' 현상에 대해 다루고자 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자살을 선



택하고 그에 대해 말들이 많다. 자살은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는 사람들의 구조적 현상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전쟁의 폐진병 같은.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극중극 형식으로 가져왔다.

읽어보니 그동안 보이었던 동이향 작가의 작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전편들에서는 언어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구조도 보이고 서사의 흐름도 보인다.

동이향 20대에 하고 싶은 이야기, 30대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나 이대별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언어에 관심이 있었다면 생각도 좀 바뀌는 거 같고, 글쓰기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난해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김지훈 작기는 〈원전유서〉에 대한 강한 인상과 스타일 때문에 후속작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다.

글_ 김민정 무대공연을 위한 대본을 쓰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로서 가끔 이와 관련된 글도 쓰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꿈꾸며 산다.
 사진_ 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사진+여자?

“상주작가라면 극장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이용해야겠다는 욕심도 있고 일반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동시대의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김지훈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공간이나 캐릭터 모두 다르다. 하 고자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눈에 띠지 않을지라도 작가들은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한다.

9월에 공연할 다음 작품은 직접 연출도 한다고 들었다.

김지훈 이윤택 선생님이 연출을 계속 권했었다.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냥 일정을 넣어놓았더라.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작 〈산업고 텐〉을 직접 연출 한다.

희곡을 쓰다가 연출을 겸하게 된 면에서는 동이향 작가가 선배라고 할 수 있겠다. 같아보니 어떠하던가.

동이향 희곡이야 스스로를 이겨내는 작업이지만, 연출을 하다 보니 마치 생활인이 되는 것 같다. 연극 생활인. 이건 사회생활이다.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연출을 하다 보면 희곡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많이 빼 앗기는데 또 안 하자니 작가로서 다른 연출가와 작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김지훈 작가의 〈풍찬노숙〉은 7월 6~8일, 동이향 작가의 〈잊혀진 부대〉는 13~15일에 공연된다. 〈풍찬 노숙〉은 연출가 김재엽이, 〈잊혀진 부대〉는 동이향 작가가 직접 연출하는데.

김지훈 김재엽 연출과는 첫 만남이다. 하긴 연희단 거리패에만 있다 보니 모든 게 처음이고 기대된다. 〈원전유서〉도 독회를 거쳐 공연한 경우인데, 그때는 낭독공연 후 별 다른 수정은 없었다. 내 작품은 늘 뭐가 많아서 탈인데 설명적인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에 대해서는 김재엽 연출을 만나보고 결정할 것 같다.

동이향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번 낭독공연도 내가 연출을 맡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고 낭독공연을 통해 작품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극장은 연극인들의 집이다. 연극인들이 극장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고도 이상적인 일인가. 특정 극장을 무대 삼아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작가나 연출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다. 기대와 아쉬움 속에서 상주극작가 1기는 막을 내린다. 남산예술센터는 1기의 운영을 통해 드러난 단점들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주예술가제도와 함께 극장 드라마티그를 두는 것도 구상 중이다. 작가들 개인 작업의 드라마티그라기보다는 극장 전체의 프로그램을 위한 드라마티그가 될 것이다.

7월 낭독공연에 이어 시즌 프로그램 공연 일정이 남아 있으며 그 후에도 여전히 동이향, 김지훈, 두 작가는 연극계의 기대주로서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을 만날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의 연극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그들을 통해 그려보자. 남산예술센터의 상주예술가제도가 그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2기, 3기 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푸른 나뭇잎이 가득한 싱그러운 7월,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주로 메신저나 SNS 서비스만을 이용하던 커플이 모처럼 연극을 보기 위해 대학로를 찾았다. 대학로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지만 공연 관람보다는 평범한 데이트 코스를 즐겼기에 사실상 이번 관람이 커플에게는 처음이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 거리에 선 커플. 어떤 공연을 볼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다.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고, 매표소마다 저마다의 공연을 홍보하는 손길이 가득했지만 막상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재미있을까?”, “비싼 건 아닐까?”, “어떤 내용이지?” 등등의 궁금증이 커플의 걸음을 잡고 있었다.

스마트한 커플의 대학로 공연관람 도전기

스마트폰으로 문화정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01

스마트폰 앱〈대학로공연정보〉 다운받기

평소처럼 네이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던 중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든 〈대학로공연정보〉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앱도 있었구나!”라며 바로 다운을 받기 위해 스토어에 접속하고 앱을 찾기 시작했다. 검색에서 ‘대학로’를 찾으니 바로 앱이 눈에 들어왔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작품과 공연장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니 “딱이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



02

공연장 위치 살펴보기

앱을 다운받고 바로 실행! 첫 화면부터 남다르다. 화면 가득 일러스트로 그린 약도 형식의 공연장 지도와 이름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니 지도도 따라서 회전을 한다는 것.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회전하는 지도를 보니 공연장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었다.

우선 지도상에서 공연장 이름을 터치해보니 공연장의 이름과 현재 공연 중인 작품명이 화면 하단에 나타났다. 대학로를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었다. 더군다나 약도 형식의 지도가 아닌 일반 지도상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서 대학로를 자주 찾지 않는 이들에게 구석구석 숨어 있는 공연장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강현실이라는 스마트폰만의 남다른 기능까지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대학로 거리를 비춰보니 거리곳곳에 공연장 이름이 보였다. “와! 직접 거리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겠는데!”라는 감탄과 함께 신기함에 빙빙 돌아가며 대학로 거리를 둘러보게 되었다. 알아보니 내가 있는 곳에서 약 100m 거리 내 공연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직 대학로 거리가 낯선 커플에게 속속들이 대학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03

보고 싶은 공연 찾기

어떤 공연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앱 하단에 보니 5개의 메뉴가 보인다. ‘공연 중’, ‘공연장’, ‘공연검색’, ‘이벤트’, ‘쿠폰함’. 우선 ‘공연 중’ 메뉴를 눌러보니 오늘 공연 중인 작품 리스트가 나왔다. 포스터와 공연제목, 공연장, 날짜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면 위를 보니 ‘연극’, ‘뮤지컬’, ‘아동/가족’, ‘기타’ 등의 분류가 보인다. 원하는 장르별로 리스트를 보여주니 제목만 봐서는 어떤 공연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였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A, B, C, D라는 글자와 별표가 보인다. 별표는 공연에 대한 별점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알파벳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글자마다 색상도 다르고, 좀 전에 본 것 같고. “아! 지도에서 봤구나!” 알파벳 A, B, C, D는 공연장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첫 화면에서 보이는 지도에서 대학로 거리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구분했던 것이다. 리스트에서도 공연장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리스트를 훑어 내려가며 마음에 드는 공연을 찾았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당 공연을 터치해보니 공연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온다. 간략한 소개와 공연장 정보가 나오고 수화기 모양의 버튼이 보인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커플. 무조건 눌러본다. “앗!” 갑자기 통화 화면이 뜬다. 황급히 종료를 누르는 커플. 당황한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이제 보니 공연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을 직접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었다. 바로 전화까지 가능하다니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다시 앱을 살펴보니 원하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요일별로 공연 시간을 보여주는 표와 관람료, 할인정보, 러닝타임, 작품소개, 공연 이미지 등이 상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처음 공연을 보는 커플에게 유용한 관람후기와 별점까지! 생생한 후기가 공연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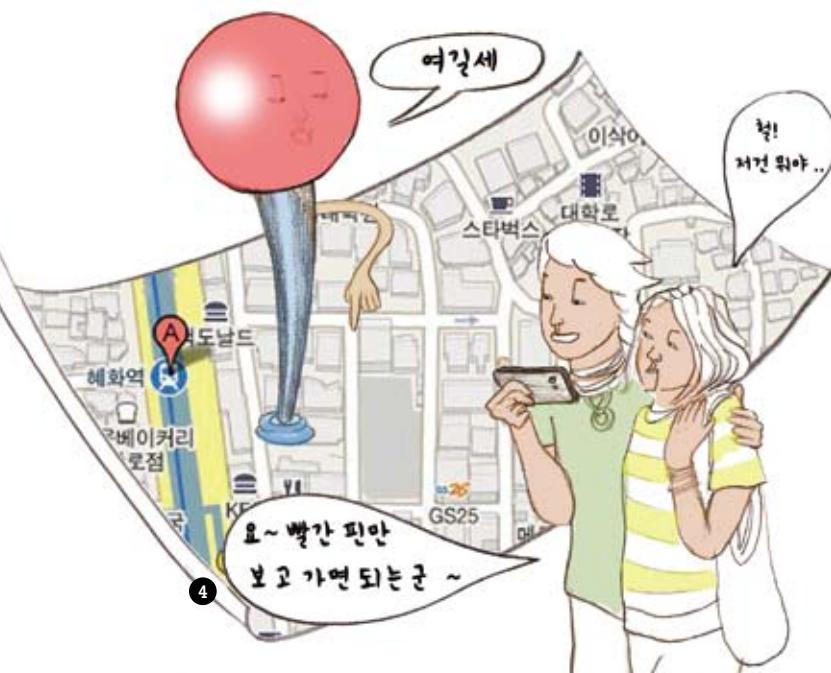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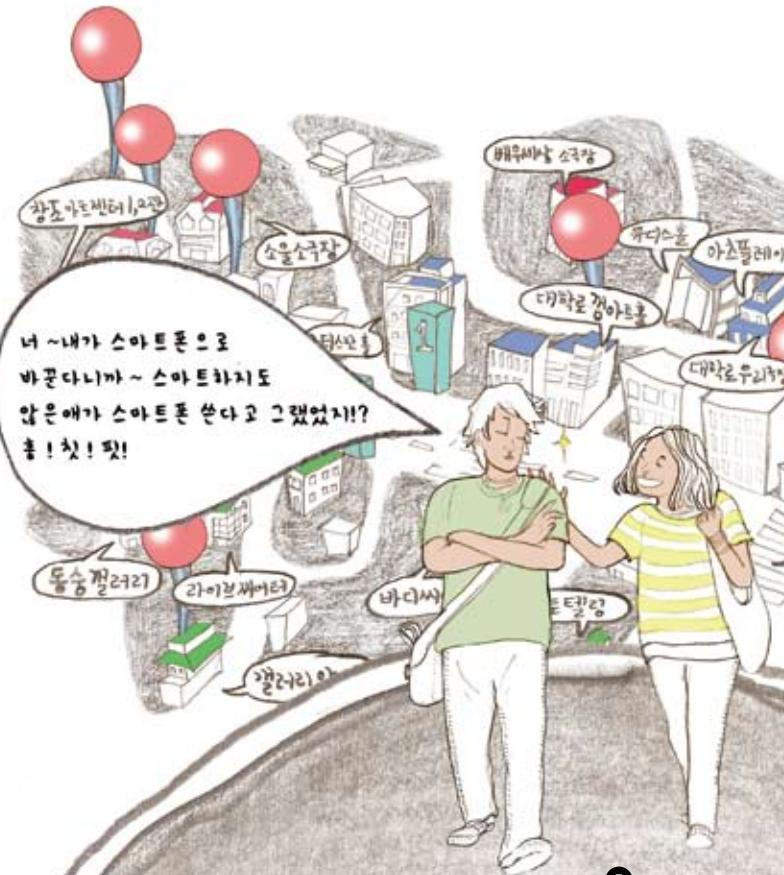
지도 위 빨간 편을 보며
공연장 찾아가기

막상 공연을 선택하고 보니 공연장이 어딘지 모르는 커플. 얼마 안 남은 공연시간에 불안감이 밀려 온다.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앱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그리고 보니 공연정보에서 '공연장정보'라는 버튼이 있었구나! 마치 심마니가 산삼을 찾은 듯 기뻐하는 커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며 쳐다보지만 커플은 앱 화면만 열심히 바라볼 뿐이다.

'공연장정보'를 터치해보니 선택한 공연을 하는 공연장 정보가 보인다. 건물 외관사진과 함께 주소, 연락처 등의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 심지어 화장실 남녀구분 정보까지 있었다. '정말 자세한 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 '근데 어디에 있는 거지?' 위치를 글로 설명하는 것으로 커플의 궁금증이 해소되진 않았다. '다시 첫 화면에서 공연장을 찾아봐야 되나? 그 많은 공연장 중에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공연장 정보에 '지도'라는 버튼이 보인다. 터치를 해보니 일반지도에 붉은색 편이 딱 하나 보인다. '아! 여기구나' 복잡한 대학로 거리에서 커플만을 위한 안내 표지가 세워진 것이다. 이제 공연장 찾아가는 건식은 죽 먹기였다.



4



5

05

쿠폰함 등 다른 기능 살펴보기

불안한 마음이 사르르 녹고 이제는 찬찬히 앱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단 메뉴 중 '공연장'을 터치해보니 그, 뉴 순으로 공연장 리스트가 보인다. 150여 개의 공연장에 대한 정보를 모아두어 대학로를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하게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제 커플도 욕심이 생기는지 나중에 "이 공연장에서는 뭐 하지? 저기는?" 이라면서 여유롭게 공연을 찾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연검색' 메뉴로 넘어가니 분류별, 장르별 검색과 직접 공연명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꾸만 눈이 가던 '이벤트'와 '쿠폰함' 메뉴! 이벤트 메뉴를 보니 공연초대 등의 다양한 이벤트 리스트가 보였다. 간단하게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자동 응모가 되니 다음에는 꼭 이벤트를 통해 무료관람을 해보겠다는 투지가 생긴다. 모든 이벤트에 응모를 하는 커플. 내심 당첨이 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메뉴 '쿠폰함'. 정말 대박이었다. 여러 공연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쿠폰'이었다. 커플이 보고자 했던 공연이 있나 두근두근 찾아보니 '있다! 그것도 40퍼센트 할인!' 따로 출력할 필요도 없이 현장 매표소에서 쿠폰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니 횡재가 따로 없었다. 이것으로 공연을 보고 난 후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06

또 다른 문화정보 어플 활용하기

즐겁게 공연 관람을 마치고 나서 알아보니 <대학로공연정보>라는 앱은 서울연극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던 것을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다른 문화정보 앱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니 <대학로공연정보>를 만든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앱을 선보이고 있었다. 지난 5월 한강 및 도심에서 선보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앱과 서울의 유휴시설을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선보이는 <서울시창작공간>이라는 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문화재단 모바일웹(m.sfac.or.kr)과 함께 남산

예술센터의 각종 공연 정보를 볼 수 있는 남산예술센터 모바일웹 (m.nsartscenter.or.kr)도 있었다. 남산예술센터의 경우 모바일 예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대학로뿐만 아니라 도심의 남산에서도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의 무료문화행사를 소개하는 <무료문화정보>라는 앱도 출시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겠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화라는 현대인의 욕구를 ‘스마트’하게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문화정보가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며, 이울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기대해본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① 서울문화기업 육성사업의 방향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업을 포괄하여 '서울문화기업육성'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문화+서울」에서는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최근 공공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조명한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꾸고 있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들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본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 제도를 안착시키고, 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문화재단이 선택한 길이다.



'Boom to Bland 시나리오'를 경계한다

사회적기업이 봄이다. 2011년 들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후 각 지역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과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열기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시도 지난 5월 30일에 2011년도 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결과를 공지했다. 이로써 68개 신규선정 기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77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당초 목표(2011년 300개, 2012년까지 450개 선정)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책 시행 초기여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각종 정책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슈들이 차츰 몇 개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다.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온라인커뮤니티 '세상(SESANG)'(www.se-sang.com)에 개설된 토론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현재 위기이다" "고용하기 위해서 뺏을 만드는 기업에 반대합니다" 등의 이슈토론에서 현장 사회적기

업가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만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담론을 규정화된 제도가 담아내기 버거워하면서도, 똑같이 급격한 속도로 따라가거나 오히려 주도하다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공공정책의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창조도시 정책 봄을 따라가기 위해, 2006년 민간 주도형의 성공적인 창조클러스터 사례로 알려진 영국 뉴캐슬의 오스번밸리(Ouseburn Valley)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당시 오스번밸리 소개 자료 중 'Small amount of grant와 Boom to bland 시나리오(급격하게 봄업되었다가 결국 모두 멋밋하게 차별성 없이 시들해지는 시나리오)'를 경계한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회적기업 정책 봄이 시들해지지 않고 원래의 가치를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문화재단은 이미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지원 정책의 새로운 트렌드로 꼽히는 서울예술지원박람회에서 사회적기업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우수사례 소개 전시와 인증전환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사업 소개와 네트워킹 행사도 실시했다. 2010년에는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도 개설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예술지원사업에서도 단체의 조직역량이 중요한 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서울문화재단은 사회적기업의 본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선도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이다. 예술적 역량 이외에 조직적 역량을 갖추어가는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여 도달할 수 있는 조직체계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형태를 설정하고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이를 지원하거나,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생산과 사회 혁신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민 대상 문화서비스 전달기관인 재단이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대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로서 이러한 지향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봄업된 서울시 정책이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행정 및 지원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위치 설정을 할 것인지를 고민이다.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책공연은 찾아가는 책공연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책과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다.



성미산마을극장사업단은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이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선 2010년에 설립한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의 이름에서 그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책 틀과 연동하되 서울문화재단이 육성 지원 할 기업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지정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문화벤처, 기존의 문화기업 중 문화예술의 가치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스로 건실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서울문화기업’이라고 지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서울문화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재단 정책연구실TF에서는 2011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3월부터 자료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의 자생적 담론을 제도화하기로 나선 정책 및 행정 주체가 져야 할 책임과 태도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꾸짖음도 있었고, 봉착한 위기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조언도 있었다.

지난 5월 4일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동 기획자문회의에 참석한 현장 사회적기업가들은 정형화되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카데미의 개선과 교육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지적

- **사회적기업 (주)이야기꾼의책공연
유홍영 예술감독**

“예술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생적으로 고민이 있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의 틀에 맞추기 위한 거짓말을 양산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 **사회적기업 (주)아트브릿지
신현길 대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선정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갈수록 조직운영 능력이 다소 미흡한 단체들이 선정되고, 그런 단체들일수록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 극장사업단
송민규 기획팀장**

“마을극장(예술)과 지역의 관계 설정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제는 공공부문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로서 문화예술을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
유다희 대표**

“차라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인식전환 아카데미나, 사회적기업 근로자 대상 기업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문화예술단체로 시작했던 조직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급여를 받고 세금 신고하고, 근태 관리받으면서 예술가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경계에서 갈등하며 조직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

- **(사)seed's 청년네트워크사업단
김종휘 단장**

“지금까지 수강생 실적 늘리기식 아카데미가 문제를 만들어왔는데, 아카데미는 인력 양성보다는 네트워킹 인프라로서 필요하다. 아카데미 운영기관이 가진 자원을 연계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본다.”

- **함께일하는재단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장상훈 센터장**

“제도에 부합하려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제도와 상관없이 소셜 미션 달성을 중점 목표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했다. 또한, 예술가에서 노동자로 취급받게 된 처지에서 느끼는 갈등도 뒤풀이 자리에서 회자되었다.

5월 26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2011 대한민국문화예술 교육주간 개막 컨퍼런스 발표차 내한한 미국의 사회적기업 BAYCAT의 대표 빌리 왕(Villy Wang)과 별도 미팅을 가졌다. 향후 사회적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야 할 사회적기업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본인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냉철하게 해고하는 기업가 마인드와 눈앞에서 비극적으로 벌어지는 그 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보다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뜨거운 마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정부의 교육, 주택, 예술, 고용, 건강 담당 부서 등 기업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든지 제안서 제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이번 문화예술 교육주간의 적절한 발표자인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범위,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문화예술 분야라는 구분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마지막으로, 함께일하는재단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방문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할 서울문화기업가 아카데미의 모델을 찾아보았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사회적기업 인증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소셜 미션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을 표방한 서울문화재단에 용기를 주는 사례이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재단 자체 예산과 기업 후원금으로 시행하여 공공 정책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오히려 이 성공사례를

고용노동부가 확산하기 위해 6월부터 양천구에 35개 팀을 인큐베이팅하는 센터를 중설하는 사업을 함께일하는재단에 위탁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에서 서울문화기업으로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울문화기업육성사업도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문화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 생산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예술 창작집단이 보다 전문적인 조직역량을 갖추어나가고 궁극적으로 수익도 내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는 기업, 즉 서울문화기업으로까지 성장함으로써 문화예술계 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 활동 형태로 예술단체 홍보마케팅 및

2011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체계





- 1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2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는 뮤지엄플레이이라는 새로운 문화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3 서울문화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1차행사 모습.
- 4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BAYCAT은 지역의 저소득층 대상 미디어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매니지먼트, 창작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예술 생태계에도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이 인식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는 문화예술을 창의성 교육, 복지, 사회통합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공 서비스로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서울문화기업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서비스부터 육성지원,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단계까지 연동되는 프로그램 구조로 2011년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 사업은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기업형태 조직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 집중한다.

올해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서울문화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서울문화기업 아카데미(가칭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정책 설명 위주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모델 개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재단 사업과 같은 공공 문화서비스와 연계한 문화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단이 보유한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워크숍 클래스를 통해 재단의 교육, 축제, 문화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창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후속 지원이 제공되는 점도 본 교육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창업 단계를 지난 기업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주선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총 4회 개최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까지 모여서 서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거나 공동 관심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자리이다.

지난 5월 30일 대학로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되었고, 7월, 9월, 11월 마지막 월요일

에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지역 . 기업 .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과 포럼 프로그램 참가희망자는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 온라인 카페(네이버카페에서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 검색, <http://cafe.naver.com/sfacsecente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페를 통해서는 서울문화기업 육성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정보가 수시로 제공된다.

같이 해서 더 가치 있게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얻은 길 찾기 힌트를 올해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 사업 각각의 프로그램에 최대한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다행히도 재단이 초기에 설정한 사업 방향이 현장에서 확인한 고민의 과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서 우선은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함께 길을 나서면 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문화기업들과 함께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그 기업들이 이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인 특성과 결을 달리할 수가 없다. '함께하기', '자원의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한 '상생'이 바로 그것이다.

재단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문화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그 결과로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예산을 문화예술부문에 지출하는 당위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문화기업이 함께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찍는 이는 찍히는 이를 보고 찍히는 이는 거대한 사진 속 사자를 본다.
그리고 사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저 먼 곳 지구를 본다.
마음껏 느끼고 상상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바람이 부는 이 지구를 사진 한 장에서부터….

예술의전당 한기림미술관 〈지구상상〉 展

사진·글_최성열

상상





자장면을 나눠 먹는 도시의 밤

연희문화창작촌 도시문학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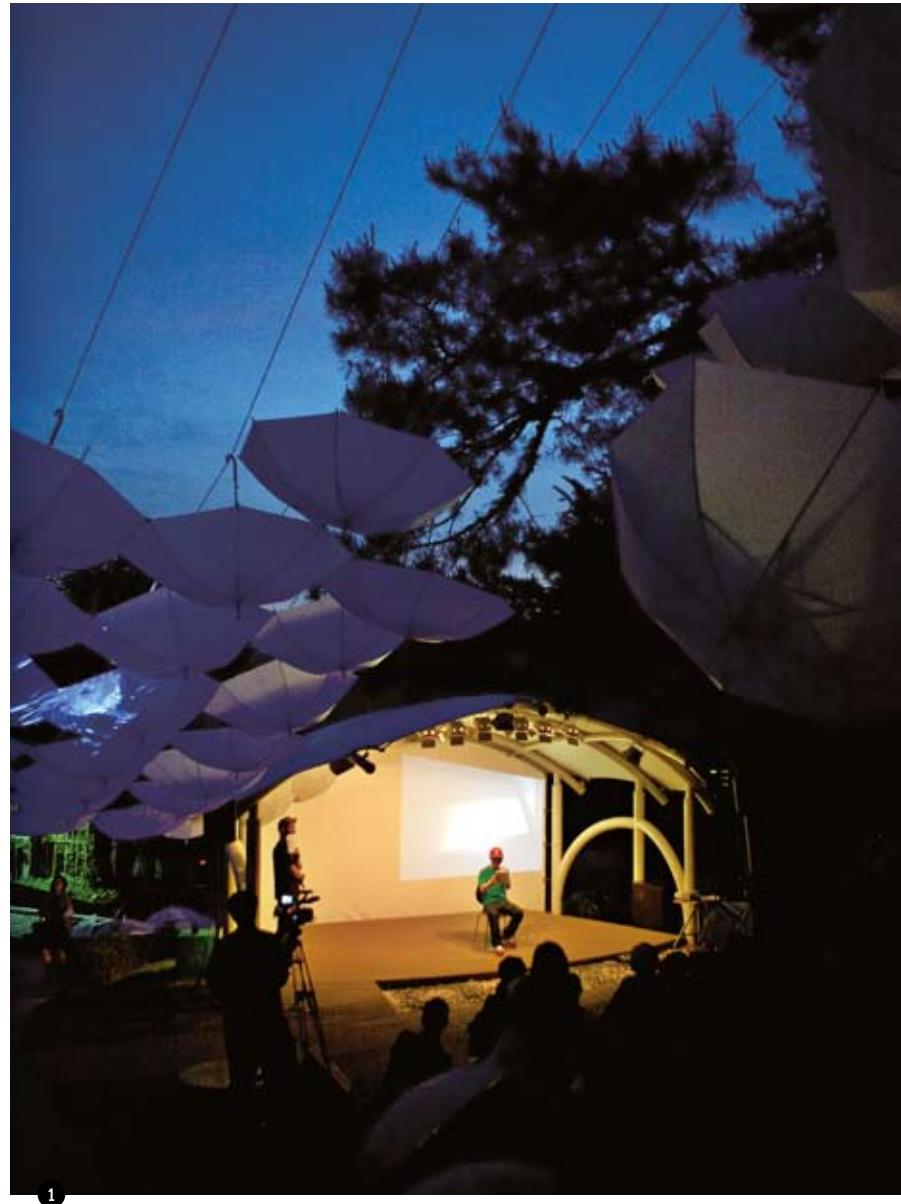


“가슴의 환한 고동 외에는 들려줄 게 없는 어느 봄 저녁”(박형준, 〈가슴의 환한 고동 외에는〉), 연희동 언덕길을 따라 올라 연희문화창작촌을 찾았다. 정문을 들어서자 펼쳐진 수십 개의 하얀 우산이 때마침 석양빛에 물들어 마치 분홍 구름이 등실등실 떠다니듯 문학촌 야외 정원을 환상적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5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연희문화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열린 〈도시문학콘서트〉는 ‘도시’와 ‘문학’과 ‘콘서트’라는 세 단어의 조합이 여실히 그 내용과 성격을 말해주는 특별한 낭독회였다.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자리로서, 한국과 호주 두 나라 시인들의 눈과 귀를 통해 무장 해제된 서울이라는 한 도시를 견자(見者)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낭독으로, 랩으로, 또 보사노바로 계속해서 몸을 바꿀 줄 아는 놀라운 시(詩)의 관용성과 그 탄력성을 느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도시문학콘서트〉는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한국과 호주의 대표 시인들이 텍스트로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해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 작가로는 황동규, 박라연, 김기택, 박형준 등 4명의 시인이, 호주 작가로는 배리 힐(Barry Hill), 아이비 알바레즈(Ivy Alvarez), 테리 젠치(Terry Jeansch), 니콜라스 로(Nicholas Low), 데이비드 프레이터(David Prater) 등 5명의 시인이 참가했다. 배리 힐은 호주의 자연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졌고, 아이비 알바레즈는 필리핀 태생의 다문화 배경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인이며, 테리 젠치는 전직 모노드라마 배우 출신으로서 다재다능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작가 선정 작업을 담당한 니콜라스 로는 호주 아시아링크에서 일하는 문화 프로그래머이자 시인이며, 데이비드 프레이터는 작가이자 편집자 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5명의 호주 시인들은 2주 동안 연희문화창작촌 국제



래지던시에 머물면서 보이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서울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뒷골목 리서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물인 사진과 텍스트를 이날 공개했다.

도시의 외침, 도시 기담, 도시의 노래

소설가 최민석의 사회로 진행된 〈도시문학콘서트〉는 두 나라 시인들의 시를 랩으로 들어보는 1부 ‘도시의 외침’과 호주 시인들의 서울 탐험을 발표하는 2부 ‘도시 기담’, 싱어송라이터 ‘소하’의 보사노바와 한국 시인들의 낭송을 들어보는 3부 ‘도시의 노래’로 진행되었다.

1부 ‘도시의 외침’에는 래퍼 스윙스(Swings)가 호주 시인들의 시를 랩으로 낭독하는 이색무대를 선보였고, 이어 듀오 힙합 그룹



1 · 2 · 3 〈도시문학콘서트〉 무대에 선 사람들.
4 5명의 호주 시인들은 서울에 대한 2주 동안의 느낌을
명함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나눠 주었다.

인 가리온(MC 메타&나찰)이 활동규 시인의 시 ‘뉴욕일기 3’, ‘비린 사랑의 노래 6’, ‘딸애를 보내고’, ‘발 없이 걷듯’을 힙합음악으로 재구성해 들려주었다. 노시인의 시가 ‘함부로’ 랩으로 불린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음악성에 대한 실험과 시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무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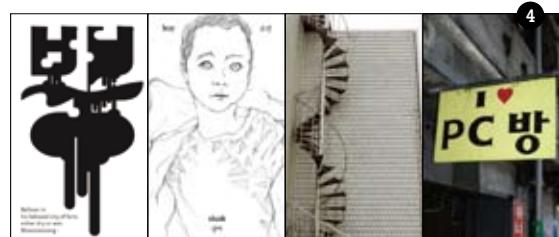
2부 '도시 기담'은 5명의 호주 시인이 디자이너 김상도, 건축가 김형석과 함께 2주 동안 서울의 속살을 살펴보고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는 무대였다. 준비된 서울이나 관광자의 서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서울을 만나기 위해 이들은 신당동 접(占)집에서부터 종묘공원 옆 노인 전용인 입장료 천 원짜리 스탠드바, 노래방, 피시

방, 멀티방, 막걸리방, 짐질방, 디비디방 등 각종 '방문화'를 섭렵했으며, 광희문의 원래 의미인 '시구문(屍軀門, 시신이 나가는 문)'의 의미까지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2주 동안의 느낌을 사진으로 찍어 스크린에 담아 상영했고, 텍스트는 명함에 담아 관객들에게 나눠 주었다. 호주에서는 명함을 주고받는 문화가 흔치 않다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가 명함인 것 같아 각자 독특한 문양과 서울탐험의 감상을 적은 시를 담은 명함을 제작해 발표했다고 한다. 2주는 한 도시를 제대로 살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각인된 이미지가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들의 퍼포먼스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3부 ‘도시의 노래’는 시인들의 낭송과 보사노바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소히(Sorri)의 무대로 꾸며졌다. 황동규 시인의 ‘겨울밤 0시 5분’의 낭독에 이어 소히의 음악에 김기택 시인이 ‘즐거운 버스’를 낭독했으며 박라연 시인은 ‘나팔꽃 피는 책’을 낭독했다. 또한 박형준 시인의 ‘눈 내리는 모래내의 밤’과 박라연 시인의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는 소히의 편곡으로 새로운 노래로 불리기도 했다. 한 편의 시는 시인의 육성과 음악과 가수의 노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다양한 변주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의 비공식 4부 행사는 '자장면'이 주인공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희문화창작촌 주변에 산재해 있는 20여 개의 중국집에서 각각 5그릇씩 자장면을 주문해 100명의 관객과 즐기는 '자장면 퍼포먼스'였다. 사정상 스무 군데에 다 주문하지는 못했지만 행사 말미에 '면발이 생명'인 자장면을 실은 '절가방'들의 쇄도는 야외무대에 앉아 있던 관객들과 참가자들에게 배 속 저 아래에서부터 밀려드는 식욕 못지않게 뜨끈한 온정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도시는 때론 자연과 대척되는 이름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숲으로 비유되지만, 그 안에는 둘러앉아 자장면 한 그릇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공동체이
자 유기물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2011년 오월 늦은 봄밤 낭도회장의 풍경이었다.



Review



소리를 통한 감각의 전환

문래예술공장
국제 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Mullae Resonance



쉬 | | | 쉬 | | | . 워크숍 첫날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낮게 깔려 있었다. 강사로 참여한 제이미 앤 런(Jamie Allen)은 필자를 포함한 15명의 참가자를 둘러보며 ‘소리 빼기(sound subtraction)’라고 부르는 괜찮은 듣기 연습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서서히 화이트 노이즈의 볼륨을 높였다. 그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가득 메울 때쯤 제이미는 느닷 없이 소리를 제거했다. 종적을 감춘 소리의 청각적 관성이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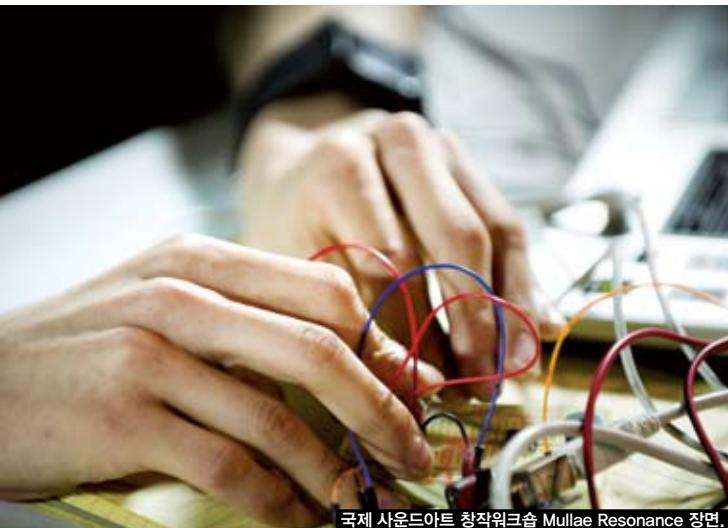
껴졌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제이미가 말했다. “지금 이 공간이 느껴집니까?”

지난 6월 8일, 총 6일간 2주에 걸친 ‘국제 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Mullae Resonance’이 시작됐다. 이 워크숍은 문래예술공장이 처음 시도하는 사운드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이었다. 문래동만의 미시적이지만 특별한 창작소스를 새롭게 발견, 발전시키고 그 경험을 축적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 예상보다 호응도 반응도 좋았다. 국내 사운드아티스트인 류한길 씨가 워크숍의 전반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운드 전문가 홍철기 씨가 통역 및 진행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세 명의 해외 사운드 전문가가 본 강의를 이끌어갔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작동되는 소리의 영역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골자로 했다.

1차 워크숍(6월 8일~6월 10일)은 현재 영국 뉴캐슬 대학 컬처랩에서 사운드와 미디어 분야를 연구하는 작가이자 연구자인 두 사람, 제이미 앤런과 베나드 가르너니그(Bernhard Garnenig)가 진행했다. 청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듣기연습이 선행됐으며, 그 후 참가자들은 녹음기를 들고 주변의 모든 사물과 공간의 소리를 직접 채집했다. 이를테면 ‘들을 수 있는’ 상태, ‘듣고자 하는’ 상태로 참가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또한 단순히 소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



국제 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Mullae Resonance* 장면.

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물과 공간의 공명주파수를 찾거나 간단한 꽉업 코일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기의 소리를 듣는 경험은 아예 들을 수 없었던 소리 영역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었다.

2차 워크숍(6월 15일~6월 17일)은 필드 레코딩 작가이자 즉흥연주자인 제즈 라일리 프렌치(Jez Riley French)가 맡았다. 주로 일상생활 속의 소리현상을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스피커 제작 실습도 진행했다.

건축, 미술, 음악, 영화,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5인의 참가자들은 하루하루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신들이 채집하고 경험한 사운드를 다 같이 모니터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워크숍의 마지막 날에는 강사진을 포함한 참가자 전원이 관객들 앞에 모여 작은 앙상블을 가졌다. 어떤 참가자는 본인의 랩톱 본체를 이리저리 두드리기도 하고 어떤 참가자는 채집한 사운드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다소 수동적일 수 있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사운드를 좀 더 주체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었던 셈이다.

소리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그 경험이 좀 더 스펙터클한 사운드에 만 맞춰 있거나 그런 소리들에 의해 장악되어 결국 자폐적인 영역 내에서 일회적으로 소비되곤 하는 게 문제일 따름이다. ‘소리’라는 그 섬세한 존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의 다채로운 형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사운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접근방식일 것이다. 또한 바로 이것이 이번 워크숍이 제시한 ‘소리에 대한 감각적 경험’의 진짜 정체다. 워크숍의 결과물은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문래예술공장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워크숍 블로그 <http://netacoustics.tumblr.com>

글_ 이미연 미술 기반 작업을 하고 있다. 컬렉티브 프로젝트 그룹 <파트타임스위트>의 창단멤버이자 공동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_ 백종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주 한 잔, 사진 한 장 그리고 여자?

● **사운드아티스트 류한길**

“감각의 영역을
새롭게 환기시켜야”



소리에 관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티스트 류한길. 이번 워크숍에서 프로그래머이자 코디네이터,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각적 각성이랄까,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당장 막대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무엇인가를 두드려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음향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기하고 무용하다. 라는 인식이 평배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쉽게 간과된다. 미디어를 통해 사운드의 스펙터클한 활용법만 부각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소리를 재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화적 조건이 짙게 깔린 탓도 있겠다.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운드 워크숍은 감각적 영역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험의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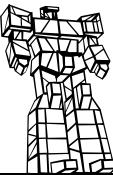
1차 워크숍이 끝났다. 사운드 관련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 워크숍을 평가해달라.

워크숍은 항상 시향착오의 연속이다. 그래도 이번 워크숍에서 사운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기술적 정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점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제이미와 버나드의 역할이 컸고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의 훌륭한 지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워크숍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시키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요즘엔 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워크숍이 종료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일종의 매뉴얼 제작을 고려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텍스트 정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워크숍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소리의 영역은 수많은 오류와 그로 인해 생산되는 소리도 경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가치를 새롭게 수용한다. 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워크숍 내부에서 진행된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직접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Review



예술공장의 문을 열다!

2011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展



2009년 서울시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인쇄공장을 개조해 문을 연 금천예술공장이 올해로 두 번째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오픈스튜디오를 열었다. 금천예술공장에서는 그동안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 시각예술 전용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세계 17개국 41명의 예술가들

이 3개월에서 2년까지 머물며 활동해왔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도 20명(팀)의 입주작가들이 그동안의 작업활동을 공개했다. 예술공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오픈된 작업을 통해서 동시대 예술의 지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f the City)〉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기획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도시 공간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관심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전시에는 회화, 영상, 사진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 40여 점을 볼 수 있었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금천예술공장은 지역 주민,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또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상품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시설 공간에서 도시와 상품미학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다양한 예술생산의 무의식적 상상력과 서로 교차시



금천예술공장 기획전시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의 관람객들.

키는 일이다. 이 전시는 지난해 8월에 열렸던 〈풍부한 무질서 (The Rich Disorganization)〉에 이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이다. 지난해가 우(牛)시장과 가리봉동 일대 등 금천지역을 테마로 한 작업이었다면, 올해는 그 상상력을 서울로 확대했다.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은 도시라고 하는 집단적이고 거대한 공간이 어떻게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도시공간의 변화가 마치 한 작가의 드로잉 혹은 판화작업을 연상시키는 프랑스 작가 줄리앙 코와네의 작업이나 도시의 복잡한 공간 속에 전개화되어 있는 개인의 사소한 일상에 주목하게 하는 정정주의 비디오 공간 설치 작업은 도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을 파헤쳤다. 반면 일상 속을 유쾌하게 비집고 들어가 다양한 사람과 만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백현주 작가의 영상작업이 있는가 하면, 에프에프처럼 도시공간의 정치적 속성을 유쾌하게 폭로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에프에프는 도시공간의 문화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작업으로 도시 공간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전시에서도 역시

전시장에 단순한 프레임만을 설치하고 ‘한 일부가 정성스럽게 칠한 벽’이라는 제목만을 붙여놓았다.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액티비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에프에프는 도시공간의 홍보 포스터를 정치적으로 패러디하거나 도시행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위트 있는 작업으로 관람객들을 미소 짓게 했다.

예술가와 지역주민, 공동체의 만남

이병수의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희망과 연관된 이름을 가진 장소를 찾아다니는 매우 엉뚱한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희망을 찾아 서울시 전역을 자전거로 이동하고 이동거리와 목적지의 위치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이동 중에 작가는 사라지고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장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작가는 희망의 부재를 역설하고 있었다. 또한 임홍순과 금천 미세스는 금천 지역 여성들의 삶을 통해 일반적인 한국여성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참여자 모집 전단을 보고 모여든 여성들은 워크숍을 통해 여성의 통념을 깨뜨리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참여 여성 8인의 사적인 귀중품을 선보인 사적인 박물관에서는 개인의 자격증이나 훈장 등을 함께 선보이면서 개인의 역사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끌어내 보여주었다.

이번 금천예술공장의 입주작가들을 살펴보면, 네털란드의 설치·미디어 예술가 앤리카 블리만과 마리 마이 춘 다이스마, 미국계 태미 킴 등 한국인으로 입양되거나 해외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적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작가들의 작업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작가군의 발굴은 금천예술공장이 표방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독특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주목하고 이들의 예술언어를 통해 한국 동시대 예술을 반성적으로 반추하는 실험의 가능성은 아직도 유효해 보였다.

또 다른 한 군의 작가들은 금천예술공장의 다학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선정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3D 영상으로 꽃을 피우거나 사라지게 하고 다양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관람객들의 인터랙션을 끌어냈다. 김동조를 포함해서 드디어 작업하고 있는 박얼과 양숙현의 ‘개구리 실로폰’은 미디어를 다양한 감각으로 전환했다.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예술과 과학의 학제적 결합을 위해 구상된 프로젝트로 때로는 과학과 기술 영역의 전문성에서, 때로는 예술 영역의 전문성에서 출발해 서로 만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과정으로서 오픈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금천예술공장의 사업이 해를 거듭해갈수록 예술가 상호간에 또한 지역주민과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정경주 / Metaphysical star / 알루미늄, LED조명 / 130x120x80cm / 2010



이병수 작가 스튜디오 전시 장면.

글_ 백기영 경기창작센터 학예팀장. 독일 뮌스터 큐스트 아카데미에서 영상미디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창동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로 〈정원&이주 프로젝트〉 〈파프리카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으며, 예술정책과 기획활동을 병행하며 의재창작스튜디오 디렉터, 안산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를 역임했다.

말랑말랑한 신문, 딱딱하게 읽기

〈신문: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전



1

인터넷 포털에 뜬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심한 말 중 하나가 “아주 소설을 써라, 써”이다. 기자에게 소설을 쓴다는 말은 취재나 정확성 등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글, 즉 기사답지 못한 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같은 글이라도 우리가 신문에 기대하는 것은 소설에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사진은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서, 신문기사에 실린 이미지에는 가공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2009년 한국언론재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3세 이상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 미디어는 일반 소셜미디어보다 신속성과 시의성 두 가지 분야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심층성, 전문성, 다양성, 차별성 항목에서 인터넷 지식공유 사이트나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조사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만약 인터넷

을 사용하지 않고 신문 구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로 신문과 방송에 대해 과거만큼 엄격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라고 아무리 내세운다고 해도 독자는 그것이 애초부터 ‘미션 임파서블’이며, 최대한 공정하려는 방향으로 지향한다 해도 결과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오히려 각 신문마다의 논조와 ‘색깔’로 통용된다. 오히려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신문의 달콤한 주관성 속에 파묻히는 셈이다. 우파적인 신문이든, 좌파적인 신문이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는 신문이 보여주는 세상을 지금의 현실로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

C일보를 즐겨 보는 강남 부유층의 ‘요즘 세상’은 오××뉴스를 즐겨 보는 대전 비정규직 연구원의 ‘요즘 세상’과 다를 것이며, 공중파 TV 뉴스에 의존하는 부산 80대 할머니의 ‘요즘 세상’과도 또



2



3



4

- 1 전시 장면
2 노순택 / D일보 사기판촉사건의 전말 /
Archival pigment print / 80x60 cm / 2007
3 박재동 / 한통노조만평 / 10x10cm / 1995
4 서평주 / 석유 한잔의 여유 / Acrylic on newspaper / 13x18cm / 2010

다를 것이다. 신문기가 세상의 부정을 파헤치는 투사의 이미지를 더 이상 갖지 않듯이, 신문도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목소리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

손으로 넘겨가며 보는 신문 이야기

오늘날의 신문은 과거에 비해 말랑말랑하고 편안하다. 기사가 무기명으로 제공되던 과거와 달리 1993년부터는 신문기사가 실명제로 시행되면서, 신문기자도 담당부서에 따라 문체를 갖게 되고 팬을 거느린 스타기자도 탄생했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원이 등장하면서, 신문과 방송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 의존하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변화하기도 했다. 인터넷의 확산 속에서 정보의 취득원이 실로 다양해졌다. 시민이 기자가 되는 신문부터, '네이버 신상털기'까지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소개되며, 유통된다. 신문이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공간 충정각의 <신문: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 전은 신문을 재료 혹은 소재로 사용한 신문에 대한 작품들을 소개했다. 기획자는 기획의도의 서두에서 4월 6일 '신문의 날'을 언급했지만, 신문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할 그 기념일과 별도로, 이 전시가 흥미로웠던 것은 지난해부터 모두 SNS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반대로 오래

된 미디어인 '신문'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신문으로 정보를 접하고 세상에 대해 배우고 판단기준을 익혀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사무실 컴퓨터 화면으로 세상을 만나고 자신이 '현실이라 믿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금, 손으로 종이를 넘겨가면서 보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신문의 내용 자체에 대한 작품(박재동), 둘째 신문이 사회에서 유통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 작품(노순택), 셋째 독자가 신문을 받아들이는 관계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광기, 조혜경), 넷째 독자가 적극적으로 신문의 내용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작품(서평주, 연미, 전재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박재동의 만평 원화는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서 한 편의 만평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작가를 포함한 내부의 수정을 거쳐 해야 할 말을 촌철살인의 풍자로 보여주었던 만평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아침마다 신문을 펴면 가장 먼저 찾아보았던 만평이 과거보다 위축되었고 폐지되어가는 요즘, 작은 사각형 안에서 강렬하고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던 만평의 '미친 존재감'이 새삼 그리워진다.

다음으로 노순택의 작품은 일종의 의사 다큐멘터리 포토(pseudo-documentary)와 같다. 사진과 텍스트가 함께 전시된 <D일보 사기판촉사건의 전말>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불이 일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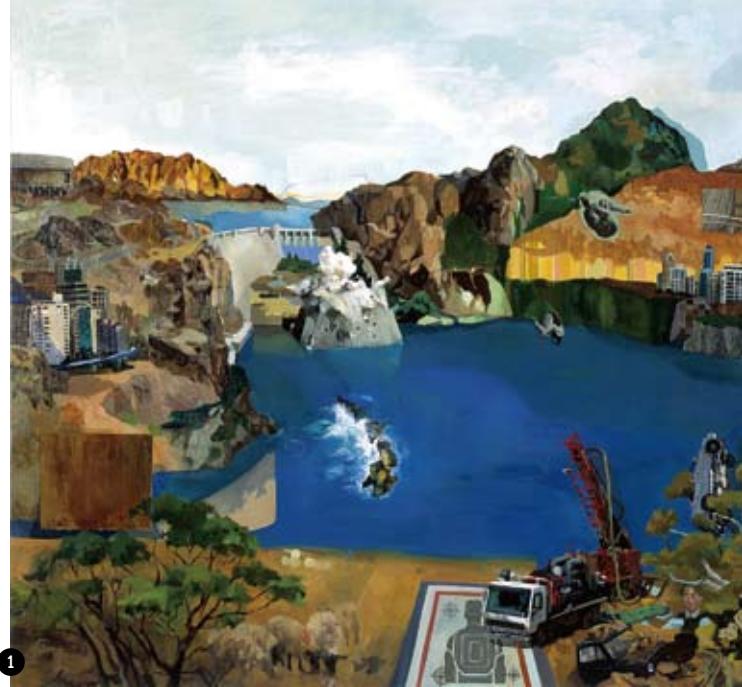
다〉의 경우, 끈질기게 신문을 판매하려는 판매원과 대화하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된 주부의 사건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상세하게 보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신문 판매 부수를 한 부 늘리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로 주부를 대하던 판매원은 그녀에게 뚱뚱하다는 소리를 내뱉고, 그에 ‘가슴에 불이 인’ 주부는 결국 경찰을 부르기에 이른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여러 번 유사한 상황을 마치 사건 현장에 잠복한 경찰이나 취재기자가 몰래 포착해낸 특종처럼 연출한 장면은 사실 희극적이다. 과도하게 엄숙한 분위기 속의 장면은 낄낄 대고 웃으면서 볼만한 풍경이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라는 미션 임파서블

이광기와 조혜경은 독자로서 신문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준다. 전작에서 고속도로 주행과정에서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텍스트로 보여주었던 이광기는 신문의 제목과 기사 내용 등을 보면서 머릿속을 지나쳐가는 여러 생각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내겐 너무 어려운 마트 포인트 카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단상들, “50원 적립하느라 손님과 점원 두 사람이 애쓴다. 시간, 노동, 종이, 말, 말, 말…”이라든가, “한 달 내내 챙겨 받아도 받는 건 하이타이”라든가 달콤하게 포장된 기사다면의 쓴웃음 나는 상황을 보여주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조혜경에게 신문은 객관적 정보라기보다는 개인적 ‘기억’의 기념물이다. 신문의 기사는 중요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사와 이미지의 레이아웃이 정해진다. 독자는 그 가운데 자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자신만의 레이아웃을 만들어낸다. 객관적인 정보의 매체인 신문이 해체되어, 정서적인 기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조혜경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한다면, 전채강은 그날 신문의 중요한 이슈를 이미지로 스크랩하여 제시해준다. 신문은 특성상 4대강 공사 같은 국내 이슈부터 지구 반대편의 테러와 분쟁, 항공기 사고까지 두루 다룬다. 각기 다른 지면에 실린 그 기사들의 이미지를 한 화면 안에 묶을 때 거의 초현실적인 느낌의 상황이 연출된다.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신문을 통해 그러한 뉴스를 상시적으로 접하면서 그들이 겪는 가난과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무심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곤 한다. 수전 손탁이 〈타인의 고통〉에서 지적한 대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타국의 전쟁과 공포에 대해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 둔감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



1 전채강 / Today's Issues / Oil on canvas / 130.3x162.2cm / 2008

2 연미 / Scanned Baekryong Island / 신문 위에 드로잉 / 56x38cm / 2010

3 이광기 / 인식(認識) _ 2011년 3월 4일 / HD 4min, 28sec. 싱글채널비디오 / 2011

4 조혜경 / Stream of Time / Pencil, gesso, collage on paper / 35.5x65.5cm / 2002

의 신문은 이슈가 되지 않도록 무력화하고, 박제하는 일상의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서평주는 신문의 글씨를 일부 지우고, 사진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어서 기사의 맥락과 논조를 변화시킨다. 진지하게 모여 회의하는 백악관의 풍경 속에 그들의 공적인 오사마 빈 라덴을 그려 넣거나, 부시 대통령과 회동 중인 타국 정상의 얼굴에 빈 라덴의 얼굴을 그려 넣어서 신문 기사의 틀 속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또 좀처럼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을 연출한다. 노순택의 〈D일보 사기판촉사건의 전말〉처럼 유사 보도기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연출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글씨를 지운 흔적과 그려 넣은 인물의 얼굴로 연출된 상황임을 노출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의 모임을 보여주는 사진 위에 신문제호를 적절히 지워서 ‘개판’이라는 글씨만을 남겼을 때 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웃음을 터뜨리고 나면 씹쓸함이 따라붙는다. 작가가 신문 지면에 개입하기 전이 진실에 가까운 혹은 개입하고 난 후가 진실에 가까운가.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진실은 어느 쪽에 있는가.

서평주의 작품에서 신문 기사와 이미지가 일부 남아 있고, 일부가 변형되거나 가려진다면 연미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신문이 많은 부분을 덮어버려 전혀 맥락이나 배경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읽을 수 없는 신문, 볼 수 없는 신문이 된다. 신문은 이미지와 기사, 사진설명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정보를 만드는 것인데, 특정한 이미지를 남겨놓고 지워버릴 때 신문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채 무력해진다.



2



4

3

신문을 소비하는 방식을 추적하다

이상의 작가들의 작품이 신문과 맺고 있는 관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박재동부터 서평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신문의 의미가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의 만평기자로서 박재동의 작품에서는 신문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 보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서평주의 작품에서 신문은 오히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존재와 같은 위상이다. 이는 신문을 만들었던 주체 중 한 사람에서 신문을 소비하는 독자의 시선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박재동이 만평을 그렸던 시대와 2011년 지금 신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차이도 있을 것이다. 신문 이미지에 직접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작품들을 보면서, 왜 서평주, 연미, 전채강과 같은 작가들은 신문의 내러티브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내러티브로 변화시킬까. 아마도 과거처럼 신문을 객관성과 공정성의 매체로 본다면, 신문에 틈을 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신문이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면, 이제 신문은 여러 이야기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작가들은 신문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문-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 전을 보면서, 신문에 대한 우리의 변화된 시선과 기대를 인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조혜경 작가의 작품 형식인 좋아

하는 분야의 정보를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칼이나 가위로 잘라 스크랩하면서 오래 보관하던 '신문스크랩'을 인터넷 뉴스 즐겨찾기나 폴더기로 대체하는 지금, 신문을 소비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도 새삼 감지할 수 있다.

전시를 보고 나오면서 문득 이번 전시가 '대안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공간이란 단순히 운영상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안정신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모두가 열광하는 SNS가 아니라 낡은 미디어 '신문'에 대해 주목한 태도에서부터, 수위가 높은 작품을 전시한 점에서 근대건축물 안에서 운영되는 레스토랑 내부에 자리 잡은 충정각의 이번 전시는 '대안'공간이었다. 모 신문사의 만평 밑에 '이 만평기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라는 2011년 6월, 지금의 댓글이 생각나면서, 각국 정상의 얼굴과 '개판'이라는 글씨가 함께 보이는 작품을 전시하고 '충정각 괜찮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사어(死語)가 되기를 바란다는 페미니즘의 대부 글로리아 스타이너의 말처럼, 언젠가 '대안공간'이라는 말도 사어가 되는 사회를 꿈꿔보았다.

이 글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평론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지원하는 평론가가 '20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론입니다.

Queens-
land

한국과 호주, 예술로 연결된 다리를 짓다

한국-호주 국제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



지난 6월 3일 오후 5시경, 퀸즐랜드 주의 작은 마을 보린 포인트의 쿠사라바 호숫가(Lake Cootharaba)의 잔디 언덕에 어린 아이부터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잔디밭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모두 플로팅 랜드 페스티벌(Floating Land Festival)의 메인 초청 공연인 <히든 랜드>(Hidden Land)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관객들이었다. 드디어 6시 35분, 여섯 명의 <히든 랜드> 팀이 길놀이 형식으로 밀양아리랑을 부르며 입장했다. 100미터 남짓의 기다란 백 사장을 무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호수와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은하수를 조명 삼아 공연이 시작되고, 500여 명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숨겨진 땅(Hidden Land)’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객들은 공연자들의 몸짓에 웃고 때론 눈물지으며 시종 진지한 태도로 공연을 관람했고 약 30분간의 공연이 끝나자 함성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한국 춤 워크숍을 통해 배운 한국의 추임새 “잘한다! 열씨구!”를 외치며 환호했다.

<히든 랜드>는 작년 겨울 서울문화재단과 호주의 렘 극단 (REM Theatre)이 협약을 맺고 시작한 한·호 국제예술 창작 교류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 중인 배우이자 부토 댄서, 그리고 연출가인 제레미 나이덱과 3명의 한국인 배우와 춤꾼들이 공동 창작한 작품이다. 오디션 과정을 통해 선발된 3명의 한국 예술가(연극배우 탁호영, 한국 무용 정민지, 현대 무용 조성은)와 호주 예술가 제레미 나이덱과 저스틴 솔더, 이 다섯 명이 약 2주간의 공동 창작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서울 속에 숨어 있던 잊힌 생명체들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을 몸짓으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문래예술공장에서 쇼케이스 형식으로 관객에게 첫선을 보였고 이번 호주에서의 2차 공동 창작 과정을 통



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보다 완성된 공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호주에서의 2차 창작 과정에서는 탁호영과 정민지 그리고 박영희가 참여해 작품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처럼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단 1회로 그치지 않고 한국과 호주에서 각 3주의 창작 기간을 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예술가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는 공동 창작한 작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호 국제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이자 멘토인 캐서린 피스도 이번 공연의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샘솟는 영감, 뜨거운 창작의 열기

<히든 랜드>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팀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델루지>(Deluge) 공연의 준비를 시작했다. Deluge는 ‘대홍수’라는 의미로 올해 초 퀸즐랜드 주를 강



2



3

1·2·3 한·호 국제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하든 랜드〉 공연.
Hidden Land performance @ Floating Land Festival, Qld, Australia, Photos
Deborah Halls, 2011

타한 대홍수를 직접 경험한 데서 제레미 나이텍이 영감을 얻어 기획한 작품으로, 〈하든 랜드〉에 참여했던 3명의 한국 예술가들과 호주 예술가들을 포함한 총 1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작품에는 한국적인 몸짓이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배우 박영희의 판소리 구음이 기타, 콘트라베이스, 키보드 반주와 함께 라이브로 연주된다.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영감을 얻은 제레미 나이텍은 엄청난 자연 재해 앞에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하는 인간의 아픔을 씹어내는 ‘씻김’의장을 만드는데 작품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작품은 호주의 창작 발전 프로젝트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FreeRange 2011’에 선정되어 2주간의 연습과정을 거친 뒤 6월 27과 28일 양일간 브리즈번 Metro Arts 스튜디오에서 공연된다. 이 축제의 운영위원들은 호주 전역의 전문 공연 프로듀

서와 예술 감독들로, 창작기간 동안 예술가들을 예술적 경계의 끝으로 내몰기도 한다. 창작에는 ‘울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FreeRange(방목)’라는 제목 그대로의 환경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공연 후에는 연출가와 FreeRange의 프로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Critical Feedback Session’을 갖는다. 이 시간은 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또한 가장 기대하는 순서로,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호주의 내로라하는 프로듀서와 예술 감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조언과 비평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그래서 매년 젊고 재능 있는 호주의 예술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브리즈번으로 몰려든다. 올해는 총 50여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단 다섯 팀만이 선정되었는데 그 다섯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엘루지〉이다.

지난해 한국에서의 작업에 큰 영감과 힘을 얻은 제레미 나이텍은 호주의 공연 예술 종사자들에게 한국적 몸짓과 전통 연희로부터 발전된 연극 어법을 소개하고자 브리즈번의 Metro Arts와의 협의 끝에 3일간의 마스터 클래스를 기획했다. 타이틀은 ‘Physical Theatre: Korean Perspectives’로 말 그대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체 연극이다. 이 마스터 클래스는 공연 예술 전문인들의 진행으로 3일 동안 진행된다.

첫날은 무용수 정민지의 진행으로 한국 무용과 선무도를 통해 본 호흡과 움직임, 둘째 날은 박영희의 진행으로 봉산탈춤을 통해 보는 한국 전통 연희 속의 연극적 메소드, 그리고 마지막 날은 탁호영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보는 연극 언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클래스를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미 플로팅 랜드 페스티벌에서의 일반인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흘간의 워크숍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호주의 전문 예술가들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프로그램이 보다 완성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7월 초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에서도, 예술가들의 눈빛은 동지애와 우정, 그리고 뜨거운 창작의 열기로 반짝거린다. 그들은 이러한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공동 창작의 기회가 제공되고 양국 간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극배우 탁호영 씨는 이번 한·호 국제예술 창작교류 지원사업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와 전망을 함께 전해왔다.

글_ 박영희 어릴 때부터 연기와 판소리, 탈춤을 배우고 극단 목화와 리트어린이극장과 작업하며 15년 넘게 배우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연극 연출과 대학 강의, 통역, 그리고 이 교류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한국과 호주에서 예술가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캐서린 피스,
국제 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 디렉터

“오랜 희망의 결실을 드디어 맺었다”



한·호 국제예술 창작 교류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난 평생 동지이자 남편인 로저 린드는, 90년대 초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뒤 줄곧 한국의 모든 것을 깊이 사랑했고 한국 예술가들과 작업하면서 받은 관심과 그들의 우정에 늘 감사해했다. 그는 오랜 시간 이러한 마음을 보다 많은 이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고, 2008년부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양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고 우정을 쌓아나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랐다. 작년 6월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로저의 오랜 꿈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인 문래예술공장과 준비 끝에 이 교류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몇 해 전 로저와 나는 서울문화재단 산하의 여러 창작공간을 돌아볼 수 있었다. 장르별 특성과 예술가들의 창작 편의 그리고 지역 특성까지도 고려해 설계된 공간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로저와 내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흥분하고 놀라워했는지! 탄탄한 역량을 가진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이 우리의 그것과 일치함을 느꼈고,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면서 주저 없이 서울문화재단에 제안할 수 있었다.

호주에서 양국 예술가들의 작업과정과 공연을 지켜보며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그들 사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 빽빽한 일정 틈에 지칠 법도 한데 예술가들은 불평 없이 항상 큰 소리로 웃으며 즐겁게 작업했다. 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보린 포인트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공연자들의 몸짓 박영희의 아름다운 구음이 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잔잔한 호수와 한데 어우러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과 작업하며 '의사소통'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나는 언제나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을 경제적으로 하려 애쓴다. 특히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작업할 때는 시각적인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국제 문화교류사업에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사실 능숙한 통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을 이루려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교류 사업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시험단계에 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분명 공연 예술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려 있었다. 우리는 소위 '파일럿' 기간을 두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한편 호주의 예술지원 사업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우리가 가진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해 이해시키고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커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이브 싱가포르 2011 행사장 모습.



라이브 싱가포르 2011 행사장 모습.



세계 문화예술의 생생한 오늘

라이브 싱가포르 2011

Live! Singapore 2011

일시_ 2011년 6월 1일~3일

장소_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 및 아트하우스
문의_ www.edb.gov.sg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에서는 아시아, 유럽, 북남미의 공연예술계 전문가와 예술가 400여 명이 모여 공연예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고유의 비전을 점검하는 국제회의 및 트레이드 페어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Create Connections), 아이디어를 교환하고(Exchange Ideas), 비전을 제시하는(Inspire Visions)’이라는 세 가지 모토하에 진행된 행사에는 유럽 페스티벌 연합의 수장인 다크 별렉(Darko Brlek),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CEO 리처드 에반스(Richard Evans), 브리티시 카운슬의 예술감독 그레이엄 셰필드(Graham Shefield), 디즈니 극장 그룹의 감독인 마이클 카셀(Michael Cassel),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 극장의 CEO 벤슨 푸아(Benson Puah)를 비롯하여 한국

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안호상 대표, 세종문화회관의 박동호 사장, 서울 국제무용페스티벌의 이종호 감독이 회의 주요 연사 및 패널리스트로 초청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의 설립 및 제작 배경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문화예술 도시와 기관이 가진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크게 각 도시의 예술적 기반시설과 각국의 문화예술산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인더스트리 인사이트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IMG 아티스트, 아시아유럽재단,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 중국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한국의 이소정 등 아시아와 유럽의 공연기획사, 투어링 컴퍼니, 예술가들의 신규 프로덕션과 레퍼토리를 전시하는 트레이드 페어 세션과 함께, 인도의 시타르 음악가인 닐라드리 쿠마(Niladri Kumar)가 이끄는 시타르 펑크(SITARFUNK)와 싱가포르 무용극장의 쇼케이스로 진행되었다.

특히 ‘컬처노믹스: 예술 기반 시설을 통한 도시 개발과 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날 개막식 연설의 패널리스트로 초청된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는 서울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통한 도시 성장의 배경과 효과를 소개했다. 최근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인 창작공간 운영 결과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서울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층의 서울 시민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의 문화적 역동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

- 1 아코프 빌헬름 그림 도서관. 베를린 훌블트대학 중앙도서관으로 2009년에 완공되었다. '도서관의 긴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2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에 참여한 사람들.



2

Berlin

문화와 소통의 공간

도서관의 긴 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는 도서관 장면이 인상적이다. 천사 두 명이 머물며 거니는 도서관은 흡사 천상의 분위기를 낸다. 높은 천장의 도서관 2층, 3층의 난간에 놓인 책상에서 정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 명상, 관조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영화 배경인 1980년대 말과 현재인 21세기의 도서관 정경은 얼마나 변했을까?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빼놓으면 거의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포츠다머 슈트라세 베를린 국립 도서관의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도서관들은 '사서의 날'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특히 지난 8일 베를린 40여 개의 도서관이 '도서관의 긴 밤'이라는 타이틀로 자정 12시까지 개방해 가이드, 세미나, 퍼포먼스, 문학 낭독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이날 늦은 시간에도 도서관로 비는 도서관 이용 안내 가이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미래를 위한 도서관, 도서관을 위한 미래'를 주제로 4,000여 명의 독일 도서관 사서들과 관리자, 일반인들이 모여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와 시대에 맞는 운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열람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3년까지만 해도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존폐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못 된다. 이제 도서관은 자료검색의 장이 뿐만 아니라 토론, 만남의 장소, 사회적 학습의 장소로 발전했다.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차이퉁>에 따르면 베를린의 유수 도서관장들도 도서관 내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정보교환, 소통이 이루어지는 카페를 꼽는다. 도서관 사회학자 올라프 아이겐브로트도 "도서관은 오늘날 도서의 관리, 소장 공간으로서보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독서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서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도서관은 가장 자주 이용되는 문화기관이다. 독일 전체에 1만855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매일 평균 66만 명이 도서관에 다녀간다. 이는 한 해 2억 명의 인구로 극장, 축구경기장,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훨씬 능가한다. 이로써 컴퓨터만으로는 지식에 목말라하는 이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랑 팔레를 가득 채운 〈리바이어던〉. © CNAP

Paris

이토록 기념비적인

모뉴멘타 2011 – 아니시 카푸어
Monumenta 2011 - Anish Kapoor

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2007년에 초청되었던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를 시작으로 2010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를 거쳐 올해는 인도 출신 영국의 아티스트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가 〈리바이어던〉으로 모뉴멘타를 찾았다.

동시대 조형 미술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은 주로 색채의 감각성에 집중하며 큰 규모와 상반되는 표면의 간단명료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2002년 런던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Turbin Hall)을 압도적인 붉은 색채로 가득 채웠던 인상적인 작품 〈마르시아스(Marsyas)〉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물성을 넘어서 새로운 공간의 창조가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승고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술은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진실하고 깊은, 괴로운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리바이어던〉은 아가리가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로 묘사되는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다. 작품은 한눈에 전체를 식별할 수 없고 바깥에서 보는 형체와 내부에서의 체험은 감각적인 차이를 만든다. 이는 우리가 “시적으로 말해 내부와 외부가 다른 존재”임을 나타낸다. 묵직한 가지색 짐승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유리 천장의 햇빛이 고무막을 통과하여 만든 짙고 붉은 대기가 맞이한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색채에 관객들은 즉각적으로 흡수된다. 그의 작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 밀도 있는 붉은색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검은색이나 푸른색보다 더한 암흑을 만드는 밤의 색”이다. 작가는 “관객을 색의 범람으로 빠뜨려 사색적이고 시적인 체험을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하나의 오브제, 하나의 형태, 하나의 색을 추구하는 아니시 카푸어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괴물을 소환하여 관객이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는 특수한 공간을 새로이 지은 것이다.

●
지금 샹젤리제 거리와 센 강 사이에 위치한 그랑 팔레 앞은 파리 한복판에 나타난 괴물 리바이어던(Leviathan)에 기꺼이 먹히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관객들로 연일 가득하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그랑 팔레는 13,500 제곱미터의 면적, 35미터 높이의 거대한 전시장이다.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모뉴멘타 전은 이를 그대로 기념비적(monumental) 이벤트를 목표로 하여 역량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오직 이 장소만을 위해 창조한 작품을 요청한다. 작가들은 그랑 팔레의 중앙홀에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새



문래예술공장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

쓸모없는 물건들의 여러별 변신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6월의 토요일 한낮, '바퀴 달린 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아이의 걸음이 재다. 문래동 철공소 거리에 자리한 문래예술공장, 그곳 2층의 박스씨어터로 들어선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 구형 전자레인지와 스텀 청소기, 선이 달린 낡은 전화기와 다리미 등이 너른 마룻바닥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다. 오래된 생활의 냄새가 묻어나는 손때 묻은 물건들이 오늘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들로 탄생할 예정이다.

예기치 못한 물건의 변신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분주할 때쯤 아이들이 몰려 들어온다. 오늘 아이들을 이끌 '예술과 시민사회' 조슈아나무 최선 대표와 사혜정, 최영은 강사도 함께다. 어느새 오늘 만난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버린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말 대신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는 최선 대표에게서 다정다감한 담임선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쓸모없어진 재활용품과 폐품을 재료로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형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주된 과정이다.



생님의 포스가 듬뿍 묻어난다. 예상치 못한 화기애애함, 오늘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다.

재활용 아트로 만드는 문래동 이야기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문래예술공장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다양한 예술적 체험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술 공동체로서 문래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래예술공장의 MEET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쓸모없어진 재활용품과 폐품을 재료로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형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주된 과정이다. 특별히 참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돌며 구해온 재활용품들은 창작을 위한 재료이자 내가 살고 있는 주변과 일상의 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는 삶과 추억의 풍경이기

도 하다. 눈치 빠른 참가자라면 삶이 곧 예술일 수도 있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읽어내도 좋다.

재활용품과 폐품을 활용한 조형물의 제작은 총 3회의 체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활용품을 분해하고 조합해 만드는 1차적인 조형물 제작에서 시작해 다양한 재료와 동력 장치를 활용해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진다. 제목에 쓰인 '바퀴 달린 새'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익힌 후 기초적인 미술 이론, 균형 및 조형 원리까지 모두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6월 첫주를 시작으로 총 3회씩 3개 팀이 모두 아홉 번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모든 결과물은 11월, 이곳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미술 체험

“우선 이름표부터 만들자. 이번 작업은 너희들 기대처럼 다소 거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할 때 더 신날 수 있고, 서로를 잘 알아야



1



2



3

아이들은 모든 것이다
각자의 쓰임과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스팀청소기에서 나온 동근 판 위에 녹색의 천 조각으로 염색한 머리를 이어 붙이고 나사로 만든 작은 차이로 멋을 낸 인물상.
- 컴퓨터 본체 안에서 찾아낸 작은 부품들만 모아 같은 모양과 색깔별로 이어 붙인 미완성 고슴도치.
- 밀판을 붙여 베어를 달까 생각 중이라는, 온몸으로 기는 데지. 검게 튀어나온 눈과 데지코를 연상시키는 플러그로 재미난 얼굴 만들기에 집중했다.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구성원 모두 일일이 눈 맞추어 인사하고, 어울리는 이름표를 만들어 서로에게 붙여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로 인한 효과는 만점. 수줍음 많은 사춘기 아이들은 이 작은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훨씬 편안해졌다. 가장 어린 나이에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 재희도 제 이름을 적은 천사의 날개 모양 이름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눈치다. 제가 먼저 한쪽 어깨에 품 나게 자리를 잡아둔다.

무엇이든 사전 학습이 필요한 법. ‘재활용’이라는 말이 가진 무수한 가능성과 보다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학습 자료들을 펼친다. 일단 마음껏 뜯고 부수고 게다가 내 맘대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보겠다는 기대는 잠시 접어둔 채, 벼려진 물건들로 만들어낸 온갖 이미지가 화면 가득 펼쳐지자 이내 참가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자전거 핸들과 안장만으로 이루어진 피카소의 ‘황소 머리’,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의 그림자로 완성한 팀 노블 & 스웨스터의 도시 남녀의 이미지, 전람회의 작품이 되어버린 마르셀 뒤상의 주워온 변기가 등장할 때마다 감탄사가 이어진다. 본래의 쓰임 그리고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한 괴짜들의 무수한 예술 작품은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리 잡았다.

“얘들아, 너희들도 저런 것 많이 봤지.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아주 많단다. 문성이는 문래동에 아주 오래 살았다며. 그러면 철 공장과 복잡한 철재 가게를 많이 봤겠구나. 누구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할수록 결과는 더 새로워진단다.”

나누고 더하기, 낡은 것과 새것을 읽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에 들어갈 시간이다. 제작 활동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오늘이 특별한 미술 재료를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의 사용법이다. 가지런히 정리된 망치, 펜치, 드라이버, 니퍼, 절단기를 앞에 두고 각각의 용도를 세세

하게 설명하고 안전수칙에는 각별히 설명을 덧붙인다. 낚싯줄과 글루건도 재료를 특별히 할 재료들이다. 장갑을 나눠 낀 후 각자 제 손에 맞고 제 눈에 맞는 재료를 향해 돌진한다. 신기하게도 선택한 재료는 모두 재각각이다.

아까부터 꼬불거리는 전화기 선에 눈독을 들이던 승혜와 예지는 전화기와 선풍기를,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성철이는 컴퓨터 본체와 함께 전자레인지도 재료로 선택했다. 컴퓨터의 부품에 관심이 많은 문성이는 일찌감치 컴퓨터 본체 한 대를 선택해두었고, 둥글고 반듯한 부품들이 눈에 띠는 원적외선 치료기는 마내 재희가 선택했다. 선명한 녹색 반침과 뜨거운 열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등근 철망이 무엇을 만들어도 멋진 재료가 될 거라고 기뻐한다.

이 시간 아이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들고 쉴 새 없이 선생님을 찾아댄다. 학교에서 접했던 미술 시간과는 다른 내용들에 신이 나고 몰입한 모습이 역력하다. 재활용품을 분해하는 아이들의 손길은 거침없고 생각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

“완전 신기한데, 이건 완전 돼지 꼬리다. 여기 열면 뭐가 나올까? 이것 좀 봐, 전혀 달라. 멋진데….” 사물을 낱낱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통해 사물이 가진 본래의 속성과 세세한 쓰임들에 더욱더 깊이 몰입하고 가까이 다가선다. 분해가 끝난 후 이제 각자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간다. 낱낱이 분해된 이 대책 없는 조각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희는 처음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풀어 원적외선 치료기의 본체와 열판을 분리하고, 낡은 스티커를 뜯어보며 감추어졌던 안쪽의 색과 모양을 살핀다. 열판 안쪽에

서 발견한 구슬은 따로 챙겨두고, 둑근 철망은 연결 부위를 구부려 받침대로 만든 후 그 위에 녹색 받침을 얹었다. 연결 부분에서 발견한 사각형 판은 로봇의 얼굴이 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분해해놓은 부품들 가운데 코가 되고 입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와 얼굴을 완성한 후 아껴둔 알전구로 꼬리를 달고 챙겨두었던 녹색 구슬을 등 위에 붙여 특별한 로봇 강아지를 완성했다. 행복한 얼굴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한다.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제법 긴 시간, 그러나 대상에 따라 집중의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전환된 사물, 내가 만든 이야기

“너희들은 오늘 아주 창의적이었어.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법을 말하는 거야. 작품 하나하나가 바로 너희들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푼 훌륭한 결과물들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처럼 하면 돼. 미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자레인지 뒤쪽 판과 컴퓨터 본체의 옆면을 통째로 연결해 만든 작품은 전선으로 만든 무성한 머리카락과 익살스러운 이목구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부품에서 빼낸 천 조각들로 머리카락을 만들 생각은 누가 했어? 기가 막힌걸, 여기 형광색 얼굴에는 빨간 입술 대신 더 과감한 색깔도 괜찮겠는데, 코는 적당한 크기로 교체하면 어떨까, 와 이 촘촘한 치아는 누가 생각했는지 제법인걸. 온몸으로 기는 이 돼지 정말 눈이 크다,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래에 받침대 하나 만들어두자, 나중에 여기다 바퀴 하나만 달면 잘 구르겠어. 이 로봇 굉장히다, 컴퓨터 부품을 형태와 크기별로 꼼꼼하게 나누어서 마감한 게 정말 예사솜씨가 아닌데, 뒤에 매달아둔 이 선은 어디든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구나, 정말 굉장한데.

생각지 못했던 결과물들,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된 로봇 강아지를 두고 떠나는 발길이 아쉬운 재희는 쓰이지 못한 무수한 부품 역시 몹시 아쉬운 눈치다. 모든 것이다 각자의 쓰임과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단다. 다음 시간에는 물건들마다 가진 다양한 색과 모양을 찾아내 조금 더 단단하고 완성도 높은 새 물건이 탄생될 터이다. 잊지 말고, 가볍고 알록달록한 물건들을 챙겨 오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걷고 뛰고 달리는 전혀 다른 쓰임을 지닌 움직이는 물건들로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 진행하는 ‘예술과 시민사회’ 사람들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예술과 시민사회’의 조슈아나무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차별화된 미술 교육을 통한 대안 교육을 꿈꾸는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북미의 시막 지역에 서식하는 조슈아나무는 동물과 공생하며 안식처를 제공한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생태계에도 이로움을 주는 조슈아나무처럼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미술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암기나 숙련 대신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 미술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와 감성을 발전시킨다.

미술의 원리를 깨우치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의의는?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미술적 활동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떠한 문제를 접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돋는다. 재활용품이라는 이색적인 재료를 앞에 두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무언가에 대해 무한 상상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 도구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 미술은 감상만이 아니다. 유용한 것은 궁극적으로 쓰임이 있는 것이다. 도구의 원리와 사용법을 알고 익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미술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는 삶 속에서 미술이 갖는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일이다.

문예예술공장에서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가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전부터 영등포라는 지역이 지난 특수한 환경과 발전 가능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곳 영등포시장과 공장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품으로 진행하는 체험적 미술 활동은 지역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매개물이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재활용품도 모두 문래동이라는 지역에서 얻은 것들이다. 재활용 아트는 이처럼 우리의 추억과 삶이 담긴 물건을 수집하고 관찰하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 참가한 아이들은 이번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동네를 이해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삶을 작품에 담았다. 물론 발상의 전환과 미적 감수성은 가장 중요한 성과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오늘 한 활동이 재활용품의 분해와 조립을 통한 새로운 작품의 제작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남은 활동은 조금 더 진지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활용함으로써 미술의 기본 원리에 접근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물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움직임의 원리까지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ultural Calendar

7 월 의 재 단 소 식

07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연극	청춘 18대1	더 스테이지	7/23(토)~8/28(일) 7/1(금)~7/4(월)	더 스테이지 02-312-9940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02-3668-0029
무용	2011 김정학 DANCE WORK 심심상인(心心相印)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7/1(금)~7/4(월)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02-3668-0029
음악	서울튜티양상을 제52회 정기연주회 -창단 23주년 기념음악회 오페라 바퀴달린마술피리 모스들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용산아트센터	7/6(수) 7/7(목)~7/10(일) 7/14(목)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02-2280-4114 용산아트센터 02-2199-7260
전통	2011 타악그룹 4plus 제17회 정기연주회 서울챔버양상을 정기연주회 음유시기(吟遊詩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국립국악원 우연당	7/23(토) 7/28(목) 7/27(수)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국립국악원 우연당 02-580-3333

시각창작활성화지원사업				
전시	오브제 오브제 오브제 Kabul project 장지아개인전 보다 프로젝트-진실은 진심이다 한국의 그림 사진을 읽다 전국광 20주기전-마스의 내면 SNAP(소셜네트워크 아트 프로젝트) 인터넷(교집합)	아트스페이스H 소월아트홀 대안공간 정미소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갤러리 팩토리 성곡미술관 2관 전관 AG갤러리 통의동 보안여관	7/6(수)~7/21(목) 7/11(월)~7/16(토) 7/7(목)~7/31(일) 7/7(목)~8/2(화) 6/23(목)~7/17(일) 6/17(금)~8/7(일) 7/16(토)~7/25(월) 7/7(목)~8/1(월)	아트스페이스H 02-766-5000 소월아트홀 02-2204-6400 대안공간 정미소 02-3672-3001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02-3474-0031 갤러리 팩토리 02-733-4883 성곡미술관 2관 02-737-7650 AG갤러리 02-3289-4399 통의동 보안여관 02-720-8409

우수예술축제육성지원사업				
예술일반	제6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	6/28(화)~7/17(일)	원더스페이스 02-6711-1400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낭독공연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풍찬노숙> 김지훈 작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7/6~7/8 (수·목·금 3회)	02-758-2150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 낭독공연 <잊혀진 부대> 동이향 작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7/13~7/15 (수·목·금 3회)	02-758-2150

서울연극센터				
프로그램	7월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	7/24(일) 오후 12시 30분	02-743-9333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The Most Beautiful Korean Books 2010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제10회 한국실험예술제 성인을 위한 무용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지하 전시장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지하 전시장 서교예술실험센터	7/1(금)~7/7(목) 7/13(수)~7/20(수) 7/23(토)~7/30(토) 6/18(토)~8/31(수) 지하 다목적공간	02-333-0246 02-333-0246 02-333-0246 02-333-0246

금천예술공장				
기획	아티스트 인 스쿨(Artist in school)	금천예술공장 워크숍룸	7/5(화)	02-807-4135
프로그램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 예술가 개별스튜디오	7/14(목), 7/18(월)	02-807-4135

연희문화창작촌				
교육	미래문학N	연희문화창작촌 미디어랩(3동)	7/15(금) 오후 2시 30분	02-324-4690
공연	7월 연희문화창작촌 아외무대 '열림'	연희문화창작촌 아외무대 '열림'	7/28(목) 오후 7시 30분	02-324-4690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문래예술공장				
교육	문래예술공장 시민문화 향유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2기	문래예술공장 녹음실	6/8~8/10 (매주 월, 화, 수, 목)	02-2676-4300
전시	국제 시운드 아트 청자워크숍 〈Mullae Resonanc〉 결과전시	문래예술공장	6/2(화)~7/3(일)	02-2676-4300
영화상영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문래동네, 씨네문〉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7/9(토), 7/22(금) 문래창작촌 작업실	02-2676-4300
교육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_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1기 3차 수업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7/16(토) 오후 2시	02-2676-4300
	지역 이동 소통 프로그램 상상력 훈련소와 '스무 번, 함께 상상하기'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7/18(월)~8/12(금) (토, 일 제외)	02-2676-4300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작가. 주민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	문래창작촌 나무수레 공방	7/23(토), 7/30(토)	02-2676-4300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전시	별씨 일 년展	갤러리_맺음	7/28(목)~8/20(토) 오전 10시~오후 6시	02-943-9300
프로그램	성북 히늘공방 워크숍 해피버스데이_성북(1주년 행사)	옥상_히늘공방 센터 전 공간	7/11(월), 7/18(월) 7/30(토) 오후 2시~6시	02-943-9300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문학영역 프로그램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7/1~7/23(매주 월~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02-871-7400/7417
홍은예술창작센터				
전시	1기 입주작가 최종운 전시 〈Vertical Sea(Red)〉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연습실I	6/17(금)~7/15(금)	02-304-9100
공연	무용분야 입주작가 공연 발표 〈Sunset Movement(가제)〉	서대문 문화회관	7/20(수)~7/30(토) 오후 8시	02-304-9100
프로그램	리폼 교육 프로그램 〈폼생폼사(=Form生Form思) 초/중급	홍은예술창작센터 교육연습실I	6/30~7/21(매주 목) 오전 10시, 총 4회	02-304-9100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장애인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그룹전 〈와강창〉	장애인창작스튜디오	7/6(수)~7/18(월) 오전 10시~오후 6시	02-423-6673~5
문화사업팀				
프로그램	책, 음악과 만나다 책, 세상과 만나다 책, 영화와 만나다 움직이는 도서관	서울연극센터	7/12(화)	02-3290-7162
		서울연극센터	7/19(화)	02-3290-7162
		서울연극센터	7/26(화)	02-3290-7162
		한강공원(난지, 뚝섬, 여의도)	7/2, 16, 23, 30(토)	02-3290-7163
가든파이브 (문화숲프로젝트)				
공연	하늘樂 콘서트	가든파이브 옥상정원(테크노관)	7/1~7/16(매주 1·3주 금·토, 오후 7시 30분~)	02-2157-8776
	썸머페스티벌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7/8~7/24(매주 2·4주 금·토·일)	02-2157-8776
전시	[어린이특별전시] 하늘만큼 땅만큼 展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6/24(금)~8/21(일)	02-2157-8771
교육	문화숲 브런치강연 (노동식 작기와의 만남)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7/6(수)	02-2157-8771
	아띠북카페 + 구연동화	가든파이브 영관 9층 전시장	~12/31(매주 토·일)	02-2157-8771
체험	만드는 가드너(토·예코놀이터, 일비누제작)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7/16~8/21(매주 토·일)	02-2157-8771
	가든아트마켓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7/9(토)	02-2157-8771



S F A C N e w s

7 월 의 재 단 소식

07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년 정기공모 프로그램

출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 (The Most Beautiful Korea Books 2010)

현직 디자이너, 기획자, 서점 운영자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20~25종의 책을 선별하는 〈The Most Beautiful Korea Books 2010〉 전시가 7월 1일(금)부터 7일(목)까지 일주일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린다. 2001년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선정자인 김형재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의 기록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타인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케 하려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불리는 책과 그 책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북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책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전시이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출판된 모든 형태의 책 가운데 'The Most Beautiful Korea Books 2010'을 선별,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인과 출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쿄 북 디자인 페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 안내

기간 7월 1일(금)~7월 7일(목) 오전 11시~오후 8시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문의 02-333-0246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년 정기공모 프로그램

이제는 애니메이션이다!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스크린 밖으로 확장된 애니메이션 축제'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7월 13일(수)부터 20일(수)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및 지하 다목적공간에서 열린다. 2011 서교예술



실험센터 정기공모 선정팀 스튜디오 셀터의 이번 전시는 단순히 짧은 영상을 만들고 서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예술가들이 작업 전반에 걸쳐 영상으로 귀결되었던 수많은 아이디어를 화면 속이 아닌 공간 속으로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양식이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갈래를 소개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하위문화로 자리 잡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만화영화로 인식되어온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 양식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예술적 갈증을 충족하는 장으로 꾸며질 것이다.

축제 안내

기간 7월 13일(수)~7월 20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전시장

문의 02-333-0246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년 정기공모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무용 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선정단체인 '동자루무용단'이 일반인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자루무용단은 그동안 일반인들이 막연하게만 여기던 무용과 움직임에 대해 연구한 결과인 공연체험 7단계 프로그램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현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관객이었던 일반인에게 기본동작을 경험하게 한 후 전문 무용수들과 같이 오디션의 과정을 거쳐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일요일에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안내

기간 6월 18일(토)~8월 31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공간

문의 02-333-0246



고양이를 부탁해



해피 버스데이 TO 성북 _ 오픈스튜디오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지역 청소년/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_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 〈상상력 훈련소와 '스무 번, 함께 상상하기'〉

문래예술공장의 시민문화 개발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인 MEET(Mulæ! Emerging & EnergeTic)의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_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영등포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과 폐품을 미술재료로 활용한 작품제작 및 미술이론 수업으로, 6월 4일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에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및 스튜디오M30에서 진행된다.

또한 〈지역 아동 소통 프로그램 – 상상력 훈련소와 '스무 번, 함께 상상하기'〉는 영등포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20회 과정으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진행된다. 〈스무 번, 함께 상상하기〉는 몸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신체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이다. 참여 어린이에게는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하여 무대에 올리는 이색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문래예술공장(02-2676-4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가족 · 연인과 함께 참여하는 이색 프로그램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작가 · 주민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 〈문래동네, 씨네문〉

문래예술공장의 MEET 프로젝트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고양이를 부탁

해〉는 참여자들이 직접 고양이 놀이터(캣타워)를 제작하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유기묘를 기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목재를 활용하여 직접 고양이 놀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 23일(토)과 7월 30일(토) 2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 M30 및 인근의 나무수레 공방에서 진행된다. 고양이 놀이터 제작, 길냥이 사진공모 및 전시를 통해 서 버려진 반려동물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해보는 것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시 상영되는 독립영화상영 프로그램 〈문래동네, 씨네문(인디필름데이)〉은 7월에는 9일(금) 문래창작촌의 예술가 작업실 대안공간 문(예정)과 22일(금)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열린다.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는 일반인 2천 원, 문래동 작가는 1천 원이다. 상영영화, 장소와 시간표는 문래창작촌 커뮤니티(www.blogmoon.co.kr), '문래동네, 씨네문(인디필름데이)' 또는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문래예술공장(02-2676-4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해피 버스데이 TO 성북〉

지난해 7월, 예술치료와 주민창작을 표방하며 문을 연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오는 7월 30일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해피 버스데이 TO 성북〉과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일 년의 행적을 따라가보는 아카이빙 전시 〈벌써 일 년〉을 개최한다.

〈해피 버스데이 TO 성북〉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프로젝트 주제인 치유, 소통, 나눔의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창작과 향유의 공간 문화를 실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진행된다. 치유 부문은 주민창작 특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마



금천_예술가의 창작캠프



금천_예술가의 창작캠프

추어 밴드 합주교실의 직장인 밴드 '먼데이 필링'과 '수요일' 두 팀, 주민 색소폰 강좌의 5명이 참가하는 공연으로, 주민들의 향유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창작의 힘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이다. 소통 부문은 지난 6월 최종 선정된 2기 입주단체 8팀의 오픈스튜디오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예술치료의 숙명음악치료연구회, 아트만, 커뮤니티 아트의 최영환, 프락시스, 극단마실, 정원연, 금선희, 가난뱅이 모임 등 8팀으로 이날 스튜디오를 개방하여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 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네트워킹 파티도 가질 예정이다. 나눔 부문은 체험예술공간 '꽃밭'의 미디어 드로잉 체험 퍼포먼스 <종이창문>을 초청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극과 회화, 이들 간의 통합을 보여주며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 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가족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운영되며, 특별히 지역아동 공부방 어린이들도 초청해 예술·문화 격차 간의 장벽을 허물고 통합적인 나눔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창작공간의 예술자료 및 성북예술창작센터 1년간의 행적 아카이빙 전시

〈벌써 일년〉展

지난 1년간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관련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 <벌써 일년>展이 7월 30일(토)부터 8월 20일(토)까지 센터 내 갤러리 맷음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성북예술창작센터의 개관 전 보건소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거슬러가보며 성북예술창작센터를 통해 생산된 예술자료, 1기 및 2기 입주단체 포트폴리오, 문화예술 관련 잡지, 서울시창작공간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안내

기간 7월 30일(토)~8월 20일(토)

장소 갤러리_맷음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최종운 개인전

〈Vertical Sea(Red)〉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최종운(설치미술)의 개인전이 7월 15일(금)까지 홍은예술창작센터 1층 무용연습실에서 개최된다. <Vertical Sea(Red)>는 장력 스프링과 실을 이용하여 2m×6m 크기의 붉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이 파동하고 파도소리가 달라지도록 모터 제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기계의 힘을 빌려 보다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렁이는 스크린 위에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영상을 투과시켜 관람객으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한편 6월 18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서는 홍은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 무용단체인 '유빈댄스'의 대표 이나현이 붉은 스크린을 무대로 솔로 공연을 펼쳤다.

전시 안내

기간 7월 15일(금)까지(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1층 무용연습실

문의 02-304-9100

2011 금천예술공장 예술재능 나누기

〈예술가의 창작캠프〉 & 〈ENJOY TO DESTROY〉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에서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서울시 중·고등학생, 미술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술가의 창작캠프>와 <ENJOY TO DESTROY>를 진행한다. <ENJOY TO DESTROY>는 해외 입주예술가인 미하일 스트라서(Michael Strasser)와 태미 킴(Tammy Kim)이 10명의 미술대학 학생과 함께 7월 초(예정) 3일 동안 개최하는 워크숍이다. 지난 6월에 막을 내린 금천예술공장의 기획전시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의 창고동 작업실 부분의 전시를 텁과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전시 철거를 비롯한 색다른 퍼포먼스와 작품 제작으로 선보이면서 전시 철거를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가의 창작캠프>는 오는 7월 말 시작예술에 뜻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10개 학교에서 4~5명 추천받아 총 40명을 선별하여 진행한다.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들의 강의를 비롯해 시각예술 전문가의 초빙 강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션 과제 수행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미션 과제들을 입주예술가와 전문가가 심사해 최종 한 팀을 선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캠프 참여 결과물로 전시회를 개최해 참여하지 못한 학생 및 일반 관람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제4기 입주예술가 그룹전 여는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왜 장애인 창작스튜디오다! <와장창> 展

서울시창작공간 장애인창작스튜디오가 4기 입주예술가의 그룹전 <와장창> 展을 7월 6일(수)부터 7월 18일(월)까지 선보인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입주하여 2011년 7월까지 창작활동을 펼쳐온 입주예술가들의 결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연합전시는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의 진심 어린 작품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에게 가졌던 편견을 와장창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문승현 작가의 <노을>, 조혜영 작가의 <꽃이 흐른다>를 비롯해 25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 속으로의 특별한 체험

7월 대학로연극투어

연극, 그리고 연극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연극의 거리 대학로와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7월 24일(일) 오후 12시 30분 대학로연극투어-연극 <더 라인>을 운영한다. 대학로 속 일일사색(一日四色)

만남을 통하여 열정과 공연이 살아 숨 쉬는 대학로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레는 첫 만남 대학로의 로비 '서울연극센터', 극장 뒤편의 은밀한 초대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스테이지투어', 배우에게 듣는 대학로 그리고 연극이 야기 '배우와의 만남',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연의 매력 속으로 '연극 <더 라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비용은 1인 1만 원이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43-9333

예술 깊이 읽기, 링컨센터 LCI 예술교육방법론으로 접근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워크숍

서울문화재단은 전국 초등교원 및 전문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입문과정,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심화과정으로 개설되며,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www.sew2011.or.kr)를 통해 참가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욕 링컨센터 LCI의 전문예술교육가가 직접 내한하여 강의하는 이번 워크숍은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과 상상력 훈련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교육방법론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예술교육 사례 공유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2011)이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IE and Creativity'라는 주제로 8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철



2011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문화숲프로젝트 '하늘樂' 콘서트_자보아일랜드



문화숲프로젝트 '하늘樂' 콘서트_ Ethnic Pop Group Project '樂'

학과 데이비드 한센 교수, 영국 CCE(Creativity Culture & Education)의 폴 콜래드 대표, 문용린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발표로 교육과 예술교육, 창의성의 관계 및 방향성을 조망하고,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의적 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www.sisac2011.or.kr)를 통해 6월 20일부터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사업 교과연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2011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창의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총 40회에 걸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초등 교과 중 슬기로운생활(2학년)과 과학(3학년) 교과내용을 기본 콘텐츠로 연극적 상상력과 극적 효과를 더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된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공교육 내 창의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올해 TA수업 파견을 진행하는 300개 초등 돌봄교실 중 희망교실에 대해 선착순 운영되며, 참관을 희망하는 학교 관계자 및 예술교육분야 종사자는 사전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안내

기간	7월 18일(월)~8월 9일(화)(일요일 쉬)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문의	예술교육팀 02-758-2033

젊은 밴드들의 무한질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콘서트 문화숲프로젝트 '하늘樂' 콘서트

무더운 여름, 고층 옥상빌딩에서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며 즐길 수 있는 록

콘서트 '하늘樂'이 5개월 동안 매월 1, 3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펼쳐진다. 특히 7월에는 Ethnic Pop Group Project 락(樂)의 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서 와이낫, 자보아일랜드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국악 가수 김용우 밴드와 젊은 밴드 훌 등 25개 팀이 라인업되었다.

매주 다른 장르와 밴드의 공연을 골라 볼 수 있는 데다, 모두 무료라는 점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연 중에는 사전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깜짝 프러포즈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연인들의 사연을 신청받아 선정된 커플은 공연마다 콘서트 무대에서 공개 프러포즈를 할 수 있도록 밴드가 도와주고, 가든파이브 입주상인들이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커플링, 꽃다발, 케이크 등을 선물해줄 예정이다. 하늘樂 콘서트는 7월 1·3주 금·토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옥상정원에서 펼쳐진다.

공연 안내

일시	7월 1일(금)~2일(토) / 7월 15일(금)~16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든파이브 옥상정원(테크노관)
문의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 블로그 www.g5culture.com 트위터 @G5_Culture, 전화 02-2157-8775
일정	7월 1일(토) Ethnic Pop Group Project '樂' 7월 2일(일) 와이낫+자보아일랜드 7월 15일(토) 훌 7월 16일(일) 김용우 밴드

무더위를 날려줄 재즈와 마당놀이의 환상적인 야외공연

문화숲프로젝트 '썸머 페스티벌'

7월 우리 연희의 흥겨움을 만날 수 있는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7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에는 강령탈춤, 텔춤을 기반으로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연희공연을 통해 신명 나는 우리 문화의 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또한 넷째 주 금·토·일요일에는 한여름 밤 재즈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이정식 밴드, 트리오 젠틀레이인, 소울 재즈밴드 등 대한민국 대



썸머 페스티벌 : 이정식 밴드 〈하늘만큼 땅만큼〉 展 _ 노동식



표 재즈팀의 공연이 중앙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 8월까지 이어지는 썸머 페스티벌은 둘째, 넷째 주에 다양한 음악장르로 시민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공연 안내

일시 7월 8일(금)~7월 10일(일) / 7월 22일(금)~7월 24일(일)

오후 7시

장소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문의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트위터 @G5_Culture, 전화 02-2157-8775

일정 7월 8일(금) 강령탈춤

7월 9일(토) 광대놀음 떼이루 '신빵파전'

7월 10일(일) 봉산탈춤

7월 22일(금) 이정식 밴드

7월 23일(토) 트리오 젠들레이

7월 24일(일) 소울재즈 밴드

상상의 하늘세계, 지하공간에 재현되다

어린이 특별전시 〈하늘만큼 땅만큼〉 展

어둡고 습한 지하공간을 하늘세계로 만드는 이색전시 〈하늘만큼 땅만큼〉 展이 복합문화쇼핑몰 가든파이브 지하 스프링플라자에서 8월 21일까지 열린다. '하늘 위 세상을 꿈꾸는 전시, 스프링플라자 여기가 바로 하늘 위 구름 속'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상상 속의 하늘 세계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재현한 설치 작품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상상 속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어른들에게는 그동안 잊고 지낸 환상을 세계로 인도한다. 솔으로 만든 에어소와 구름 오브제, 다면체 종이 구름을 이어 만든 구름동굴, 딱딱한 철사를 구부려 만든 부드러운 곡선의 물방울과 구름, 센서가 달린 LED 위에 물로 그리는 별 작업, 신선 놀음을 하는 이터, 미키마우스 개구리, 강아지의 양증맞은 모습, 한복재료인 회색한 색상의 노방천을 겹겹이 겹어 만든 하늘 등 모두 꿈속에 온 것 같은 동심과 환상을 준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장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전시장에 머무르며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보도블록 사이에 핀 민들레를 연상시키듯 대형 민들레 설치 작품과 옆에 설치한 보도블록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벤치가 된다.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설명과 안내가 진행되며, 연계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인 아띠스쿨이 주말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 안내

일시 8월 21일(일)까지

장소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참여작가 노동식 외

문의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트위터 @G5_Culture, 전화 02-2157-8771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깜찍한 목각인형들이 등장하여 노래하고 춤을 춘다. 목각인형 콘서트는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유쾌한 공연으로 은행나무로 연출가가 직접 깎은 목각인형 마리오네트가 주는 정교함은 감동을 넘어 충격적이다. 눈썹 하나, 수염 하나까지 움직이며, 어깨춤을 추가도 하고 덩실덩실 엉덩이춤을 추가도 한다. 실제 사람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과 재주를 선보이는 목각인형은 동심으로의 여행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편 목각인형 콘서트와 함께 로맨틱 뮤지컬 〈아이리브유〉가 7월 22일(금)부터 약 한 달간 공연된다.

공연 안내

일시 7월 9일(토)~7월 15일(금) 화~금 오후 3시 / 토~일 오후 2시, 4시

장소 가든파이브 아트홀(영관 10층 CGV 내)

출연진 김종구, 송옥연, 채상미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문의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트위터 @G5_Culture, 전화 02-2157-1140



© 컬처인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 공연을 찾은 관객

심은미 | 직장인

공연 시작 1시간 전 이른 무더위 탓일까. 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가 올려지고 있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앞은 한산했다. 일찍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늘이 있는 공연장 오른쪽 돌담벽 아래서 태양을 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문화+서울」을 읽고 있는 관객 심은미 씨를 만났다. 사진촬영을 위해 뜨거운 햇살에도 공연장 문패가 잘 보이는 게 좋지 않냐며 자리까지 옮겨준 그녀의 미소가 상큼하다.

「문화+서울」을 접한 적이 있나?

두 번째다. 이번엔 표지가 예뻐서 얼른 집었다. 때마침 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 리뷰가 실려 있더라. 연극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건 축가의 리뷰라 더 재밌었다.

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의 어떤 점이 끌렸나?

아버지가 건축 관련 일을 한다. 그 영향 탓인지 건축물을 볼 때 예사로 보지 않는다. 이번 연극이 무대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나갈지 무척 궁금하다.

남산예술센터는 처음인가? 느낌은 어떤지?

남산 올라가는 길에 지나친 적은 있지만 공연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객석을 보지는 못해서… 외관만 놓고 보면 아늑하다. 바닥이 시멘트라 조금 아쉽지만 돌담벽과 돌의자 등이 마음에 듈다. 한여름 밤에 친구들과 오고 싶다. 하얀 테이블에 친구들과 앉아 수다 떨면 무더위도 잊을 듯한 게.



© 백종현

● 서울거리아티스트 '농구보이' 공연을 즐긴 관객

배혜빈, 박다슬, 조금비 | 효문고등학교

서울거리아티스트 농구보이 민경진 씨의 공연이 펼쳐진 청계천 장통교. 유달리 큰 웃음소리와 박수로 열광적인 호응을 보여준 무리가 있었다. 바로 효문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주말을 맞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청계천 나들이에 나섰다는 이들을 만났다.

어떤 동아리 친구들인가?

댄스 동아리다. 방송 댄스를 비롯해 힙합 등을 춘다. 실력은 그저 그렇지만(웃음).

청계천에는 자주 오는 편인지?

그렇지는 않다. 토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함께 나왔다. 그냥 산책이나 할까 해서 왔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재미있는 공연도 보게 돼서 참 좋다.

청계천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예전에 피에로로 공연을 청계천에서 본 경험이 있긴 한데, '서울거리아티스트'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 길을 걷다 문득 마주치게 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다.

농구보이의 공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저글링이다. 작은 공도 힘들 것 같은데 커다란 농구공 세 개를 둘리다니!!

공연 내내 열심히 호응해주던데 날씨가 더워 힘들지는 않았나?

공연이 재미있어서 덥다는 사실은 잊었던 것 같다. 앞으로 마술, 춤,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청계천에서 보고 싶다.

● 재능나눔 봉사단 '올프렌즈원드앙상블' 공연을 찾은 부녀

정영택, 정예진

6월의 어느 이른 여름, 성내천 물빛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요부터 클래식, 성악까지 올프렌즈원드앙상블이 연주하는 음악이 흐르고 야외공원은 이내 흥겨운 공연장이 되었다. 산책 나온 사람들 의 빌길을 붙잡는 음악이라는 마력. 그야말로 열린 예술 극장이다.

오늘 여기서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몰랐다. 딸과 함께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공연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저런 연주를 해주면 걸음을 멈추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것 같다. 딸아이에게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평소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닌나?

사실 바빠서 잘 못 간다. 아이들 엄마와 아이들은 다니는 편인데 나는 그러질 못했다. 이런 야외공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와봤을 텐데.

연주를 들어보니 어떤가?

연주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놀랐다. 아마추어라고 해서 잘할까 싶었는데 절해서 더 놀랐다. 시간이 되면 또 보고 싶다.



© 최성열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월호 특집에 게재된 「친환경 예술」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친환경 예술이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의 문화 코드 외에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작중우들 문화 체험」의 나만의 가구 만들기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한 번 직접 가구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일더군요. 제가 직접 만든 가구를 아이들 방에 놓아준다면 아이들도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서정이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죽평리

전반적으로 좋은 기사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의 문화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따끔한 충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 28번지, 차숙이네)에 관한 기사를 보니 그 연극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오랜만에 연극 관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아영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집짓는 연극 〈동 28번지, 차숙이네〉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는 곳'에서 '사는 것'으로 바꿔어버린 집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 집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성국 서울시 종로구 성봉동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 기획전에 갔다가 「문화+서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소설의 해외 반응을 느낄 수 있었던 「해외 트렌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인디밴드들을 「문화+서울」, 지면을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이슬아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6월호에서는 「해외 트렌드」 기사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세계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국문학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를 해외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획기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평범한 말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일 테니까요.

김남일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신나는 가족 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 초대 이벤트

「문화+서울」 독자 중 다섯 가족(1가족 3명, 총 15명)을 초대합니다. 이메일(ysjung@luntun.co.kr)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거쳐 개별 연락드립니다.

●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예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좋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브



가든파이브아트홀

7-8월 여름 시즌 공연작

목각인형 콘서트 & 뮤지컬 '아이러브유'

무더운 여름, 가든파이브 아트홀 공연과 함께하세요!



7월 9일(토)~7월 15일(금)

*7월 9일(토)~10일(일) 2시/4시, 7월 12일(화)~15일(금) 3시, 7월 11일(월) 공연없음
티켓가격 1만원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목각인형에
숨결을 불어넣는
한국의 제페토
'김종구'와
목각인형들이 안내하는
즐거운 동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프브로드웨이 최고의 로맨틱 뮤지컬 아이러브유

거침없이 파헤치는
남녀심리탐구 완결판!
전세계 500개 도시를
사로잡은 사랑에
관한 모든 것!



7월 22일(금)~8월 20일(토)

*8월 14일(일) 3시/7시, 8월 15일(월) 3시, 8월 16일(화) 공연없음
출연진 선우 / 김준겸 / 한애리 / 이민아 | 티켓가격 3만원

예매 인터파크 롯데닷컴 옥션티켓 예스24공연 | 가든파이브 아트홀(8호선 장지역) | 문의 02)501-7888

주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주관 

기획 CGV* 운영 CLIP* service

